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 업사이클링 (Upcycling)



주님, 세상 사는 동안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 곁에 두소서  
주님께 봉헌한 제물이니  
닿고 남아질 때까지 사용하소서

주님, 세상 끝나는 날  
더러워진 저를 내버리지 마소서  
깨끗이 씻어 영원히 당신 곁에 두소서  
다시 하늘에서 기쁘게 사용하소서

## CONTENTS

-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업사이클링 (Upcycling)
- 03 차례
- 04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5)
- 08 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6)
- 12 수방에서/ 김광서(토마스) 신부
- 13 웅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신 예수님
- 14 자서전 연구/ 윤주현(베네딕토)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7)
- 18 선교/ 김석영(요셉)수사  
<문화 적응주의 선교>의 선구자  
마태오 리치 신부의 생애(下)
- 22 성소/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4길
- 24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행복스런 마음
- 25 가르멜 프락/ 안병희  
계양산 십자가의 길
- 26 공동체이야기/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은총의 시간(1)
- 28 순례기/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11)
- 32 가르멜프락/ 박계용(도미니카)  
왜 울고 있니?
- 34 가르멜프락/ 김순상(베로니카)  
코로나의 가르침
- 36 가르멜프락/ 반숙자(벨라데타)  
눈물샘
- 38 가르멜프락/ 이옥주(미리암)  
사순시기 18일간 100성당의 추억
- 40 가르멜 인터뷰-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도원 2부  
진주처럼 고이 아름다운...
- 45 우크라이나 재속 맨발 가르멜회 소식
- 46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9)  
2022년 8월 영적나눔
- 48 비둘기
- 51 신간 안내/ 김영문(브루노) 신부  
찾아라 청하라 두드리라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 예수 성심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4호 (2022 6 1) 가르멜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 수도회 역사 \*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5)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 제2장: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의 맨발 가르멜

#### 1. 근동 지방에서 남자 가르멜의 현존

**1) 페르시아 선교:** 근동 지방에서 4세기 동안 우리 수도회가 현존해 온 것은 데레사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이는 그 뿌리에 있어서나 영성에 있어서 그리고 마리아론적 차원과 선교적인 소명에 있어서 풍부하고도 의미심장한 현존이다. 우리는 앞서 이태리 맨발 가르멜의 탄생 초기부터 선교적인 정신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다. 이 수도회의 선교적인 정신에서 나온 결실로 당시 총장이던 천주 모친의 베드로 신부는 교황 클레멘스 8세에게 이스라엘 성지에 선교사들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교황의 대답은 그곳에 선교사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이미 프란치스칸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교황님은 가르멜 회원들에게 그곳보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할 것을 추천하셨다. 그곳에서의 선교야말로 교회를 위한 최적의 봉사라고 하시며 선교사 파견을 독려했다. 이렇게 해서 맨발 가르멜에 페르시아 선교가 맡겨졌다. 그리고 4명의 가르멜 수사가 교황을 대리한 사절로 페르시아에 파견되기에 이른다. 정확히 말하면 3명의 사제 회원과 1명의 평수사가 이때 파견되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예수의 파블로 시몬(리바롤라, 제노바 출신의 28살), 성

엘리세오의 후안 타데오(롤단, 칼라오라 출신, 데레사 가르멜 출신 첫 번째 주교), 성 프란치스코의 비센테(감바르트, 발렌시아 출신), 승천의 후안(앙헬리, 움브리아 출신의 평수사). 이들은 페르시아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이태리 남부의 나폴리에서 페랄타의 돈 프란치스코 리오돌리드를 만나게 된다. 그는 군인으로 페르시아의 샤 궁정에 복무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클레멘스 8세 교황은 맨발 가르멜 회원들에게 페르시아에 대한 선교를 위임한 후,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맞서 교황에게 동맹을 제안하기 위해 1591년 4월 5일 로마를 방문한 페르시아의 국왕, 샤 압바스(1587~1628) 대왕의 사절에게 화답했다. 교황이 페르시아에 파견한 4명의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다름 아닌 페르시아의 국왕에게 보내는 교황의 사절들이었다. 교황은 그들에 이어 또 다른 선교사들을 그곳에 보냈으며, 이들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곳곳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켰다. 이들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이와 함께 페르시아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터키어를 공부했다. 1621년부터 1624년까지 이 선교 그룹의 책임을 맡았던 인물은 가경자 성령의 프로스페로(Próspero del Espíritu Santo) 신부였다. 그는 대담한 선교사이자 동시에 가르멜 산 성지를 복원한 인물이었다. 맨발 가르멜 회원들의 복음화 노력에 힘입어, 교황청은 1632년 10월 12일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스파한에 교구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 교구를 통치할 제1대 교구장으로 성 엘리세오의 요한 타데오(Juan Tadeo de S. Eliseo, 1574~1633) 신부를 임명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 도착해서 이스파한에 가르멜 수도원을 설립(1607~1749)했으며,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수도원들을 설립해 북음화의 전초 기지로 삼았다: 쉬라스 수도원(Shiraz, 1623~1738), 길파 수도원(Giulfa, 1691~1752), 카르그 수도원(Kharg, 1753~1766), 반다르 압바스 수도원(Bandar Abbas, 1688~1775), 부쉬르 수도원(Bushire, 1688~1755), 하마단 수도원(Hamadan, 1720~1752). 페르시아의 가르멜 회원들이 헌신한 사도직 분야는 아르메니아 신자들, 칼데아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며, 여기에 더해 이단자들과 열교자들의 회심을 위해 돕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시킨 사람들 중에서 두드러진 사람으로는 영국인 로버스 셸리 경(Sir Robert Sherley)이 있다. 그는 1608년 2월 2일 가르멜 회원들의 도움으로 가톨릭 교회에 귀의했으며 유명한 삼손 부인과 혼인을 했다. 이 부인은 세례를 받으며 ‘데레사’란 이름을 받았다. 샤 압바스 대왕은 이 일로 인해 가르멜 수도원자들을 더욱 아끼며 자신의 왕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가르멜 회원들은 1624년 4월 14일 라틴 미사 경본을 아랍어로 번역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1627년 6월 30일에는 미사 경본을 터키어로 번역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의 선교는 이슬람교 신자들로 인해 오늘날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1952년 9월 4일 이란 공화국은 강제로 수도원을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가르멜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는 가르멜 선교사들이 전혀 없다.

## 2) 중동 지역에서의 또 다른 선교

① 호르무즈 섬: 이 지역은 1514년 포르투갈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교회적으로는 인도 고아의 대주교에게 속해 있었다.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1612년 이곳에 수도원을

세운 바 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포르투갈과 인도 사이의 해상 무역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방어 요새가 있는 곳이었다. 또한, 이곳은 터키와 페르시아의 박해로 인해 고통받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622년 포르투갈이 이 섬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곳에서 가르멜 회원들의 선교 활동도 끝나고 말았다.

② 알레포(시리아): 가르멜 회원들은 1627년 이곳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알레포는 동방을 향해 항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을 선교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터였다. 특히, 근동과 극동의 선교를 위해 여행을 하던 선교사들은 여정의 중간에 쉬면서 기력을 회복할 만한 집을 필요로 했다. 수도원 설립을 위한 허락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술탄으로부터 얻어낸 인물은 페르시아의 선교 책임을 맡았던 프로스페로 신부였다. 그는 이 허락을 바탕으로 1627년 9월 30일 수도원을 설립했다. 사실, 그는 이 일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트리폴리 수도원, 레바논 수도원, 코바얏 수도원, 가르멜 산의 수도원을 설립한 당시 대표적인 가르멜 선교사였다. 그러나 알레포 수도원 역시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빼앗겼으며, 현재 시리아에는 1964년 베들레헴 가르멜 수녀원에 의해 창립된 알레포 가르멜 수녀원이 유일하게 남아 가르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3) 메소포타미아(바빌론) 선교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 국제 상업 도시는 유럽의 수많은 상인을 끌어들였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신자들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종교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종종 그들은 냉담에 빠지곤 했다. 이런 상황을 본 열심한 선교사인 성 프란치스코의 바실리오(Basilio de San Francisco) 신부는 바소라에 수도원을 설립하기 위한 허락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그의 노력으

로 1623년 7월 9일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이 공동체는 선교 센터로 활용되었으며, 점차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의 가르멜 선교를 위한 중심지가 되었다. 1896년에는 바소라 수도원을 계승한 새로운 선교 센터가 바그다드에 파리 관구 소속 가르멜 회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바빌론 지역의 선교 센터(동방 정교회 지역에 속한)는 1978년 공식적으로 폐쇄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가르멜 회원들의 현존은 교황청의 요청으로 인해 변함없는 열정과 더불어 비공식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그 후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센터는 그대로 남았으며, 여기서 2명의 이라크 수사와 1명의 스페인 수사가 공동체를 이뤄 난관 속에서도 가르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의 총책임자는 레바논 준관구 출신으로 테레시아눔의 교수를 역임한 장 슬레이만(Jean Sleiman) 대주교이다. 걸프 전쟁은 이곳의 라틴 그리스도 교회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로 인해 이곳의 대다수 가톨릭 신자들은 이라크를 떠났으며, 현재 라틴 전례에 속한 1,500명 정도의 신자들만 남아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의 가르멜 회원들은 특히 기도와 영적 지도의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바그다드의 연합 신학대학과 교회법원을 비롯해 여러 사목에서 다른 전례를 따르는 신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성 엘리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 기관은 바그다드, 바소라, 모술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기도 학교이다. 여기에 참여한 젊은이들 중에는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는 이들도 있다. 이곳의 가르멜 회원들은 지역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이란 혁명을 비롯해 걸프전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확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이곳은 이란 국내의 열악한 상황

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 4) 레바논에서의 선교

이탈리아 맨발 가르멜의 선교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수도회는 근동에서 서서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 알레포에서의 선교 이후, 가르멜 선교사들은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상황을 목도했으며 동시에 비신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절감했다. 특히, 그들은 레바논 산에 사는 마론파 신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들을 그 상황에서 구하고자 했다.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적합한 사제들을 준비했으며, 사제들은 마론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봉사했다. 알페오(시리아)의 가르멜 선교 센터에 대한 명성은 마론파 교회의 지르히스 아미라 총대주교에게까지 알려졌다. 그래서 총대주교는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레바논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초대했다. 이에 로마의 총본부에서는 1643년 3월 18일 3명의 수사를 레바논에 파견했다. 이들은 레바논의 ‘거룩한 산’에 약 50년간 머물렀다. 그들이 머문 곳은 성 엘리야의 ‘마르 리샤’(Mar Lishaa)라는 수도원으로, 가르멜 수사들은 이 지역의 수도생활의 쇠신을 위해 헌신했다.

1701년 이들은 스테파노 엘두에히(Stephane Eldouehi) 총대주교의 초대로 그간 머물던 성 엘리야 계곡의 마르 리샤 수도원을 뒤로 하고 베샤레(Bécharré)로 거처를 옮겼다. 수사들은 이곳에 수도원을 비롯해 약국과 초등학교를 지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약 200년을 살았다(1701~1908). 207년간 이곳에 머물며 수사들이 했던 주된 사도직은 신자들을 위한 고해성사와 강론이었다. 수사들은 1909년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다. 한편, 수사들은 1645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위해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트리폴리(타라볼

로스)에 ‘탈 엘 제리’(Tal el zehrieh)라는 수도원을 설립한 적이 있다. 수사들은 1907년 이곳에 큰 학교를 지어 청소년들을 교육했다. 이들은 피렌체 가르멜 수녀원과 협력해서 이곳에 여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학교를 지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수사들이 설립한 이 두 학교는 레바논의 젊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이 트리폴리 수도원에는 본당도 있어서 레바논 북부에 라틴 전례를 거행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1975~1990년에 있었던 전쟁으로 인해 학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들은 레바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레바논 북부에 창립된 또 다른 수도원으로 1836년에 설립된 코바얏(Kobayath) 수도원을 들 수 있다. 이곳에는 마론파 신자들의 수가 상당히 적다. 수사들은 이곳에 수도원을 설립해서 청원자들을 양성했으며, 동시에 학교를 지어 학생들의 교육을 맡았다. 1852년에는 정식으로 수도원과 성당을 지었다. 현재 이 수도원은 레바논 준관구의 수련자들을 양성하는 수련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수사들은 1968년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현재 이 수도원은 준관구 본부이자 양성소 그리고 영성 센터이자 가르멜 영성 서적들을 아랍어로 번역, 출간하는 출판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알 카르말레야 메흐들라야’(Al Carmaleyya-Mejdlayya, 1969) 수도원은 전략적인 거점에 있었던 관계로, 학교와 수도원 모두 2번(1976년, 1983년)이나 군인들에 의해 점령되고 약탈당했으며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레바논 준관구에서 최근에 설립된 수도원은 나르 이브라힘(Nahr Ibrahim) 지역에 세워진 ‘알 마이스라-푸투 케스루안’(Al Maaysra-Foutouh Kesrouan, 1995) 수도원이다.

레바논에서의 가르멜은 오늘날까지 번성하고 있다. 레바논의 수도원들은 1967년까

지 로마 관구에 속해 있었다. 그 후, 이 지역은 1967년 12월 총평의회 직속의 지부 (comisariato)로 법적 지위가 바뀌었고, 1970년 7월 7일 준관구로 승격되었다. 현재 약 40여 명의 회원들이 레바논 준관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의 주교가 배출되었다. 레바논 가르멜 수사들 가운데 일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도움을 주고 있다.

##### 5) 가르멜 산에서의 창립

가르멜 수도회의 요람인 가르멜 산 성지에 대한 복원은 맨발 가르멜의 선교를 통해 맺어진 가장 무르익은 결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앞서 잠시 살펴본 바 있다. 이 성지 복원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은 성령의 프 로스페로 신부로, 그는 페르시아 선교와 시리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르멜 산 성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제1권』 pp.302~310을 살펴보기 바란다. 여기서는 그 이후 현대로 들어와 새롭게 이루어진 수도원 설립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1931년 가르멜 산에서 개최된 수도회 총회에서는 예루살렘에 수도원을 설립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34년에 수도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당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예루살렘 수도 공동체는 피신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수도원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말았다. 그 후, 로마의 총평의회는 1992년 예루살렘 수도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건물을 복원함과 동시에 수사들을 파견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스라엘에는 4개의 공동체가 가르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수도원들은 이집트에 있는 2개의 수도원과 합쳐서 총본부 직속 지부를 구성한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6)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 레오니의 안정된 보금자리

1899년 4월 23일에 레오니는 리지와 가르멜 수녀원 원장인 곤자그의 마리 수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 레오니는 데레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저는 늘 데레사를 기억에 떠올립니다. 매 순간 데레사를 제 곁으로 부르지요. 왜냐하면 잠시라도 데레사 없이 지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레오니는 애정이 깃든 단순한 마음으로 (곤자그의 마리) 원장 수녀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지었다. “원장 수녀님께 저의 언니 동생 수녀들이 제가 서원하기 전까지 두 주마다 교대로 제게 편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 청합니다. 제가 언니 동생 수녀들의 편지를 통해 무척이나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럴습니다. 제 소망을 들어주실 거라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원장 수녀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레오니의 작은 배가 폭풍우로 인해 연달아 심하게 난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레사가 하느님께 레오니가 (수도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정말 대담하게 간청했던 그대로, 레오니는 네 번째로 수도생활을 시작하며 마침내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신

입 방문회 수녀(레오니)는 수련장 수녀를 신뢰했다. 곧 수련장 수녀가 레오니의 버팀목이었던 셈이다. 레오니는 바로 그렇게 순명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를 발견했다. 수련장 수녀는 레오니를 엄하게 지도했다. 레오니에게 어떤 인정도 베풀지 않았다. 하지만 레오니는 이따금 반항하거나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오니는 언니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크나큰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바로 1899년 6월 30일에 수도복을 착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6월 28일에 성심의 마리(언니 수녀)는 다음과 같이 레오니의 편지에 답장을 했다.

정말이지, 네가 수도복을 착복할 땐 하늘과 땅에서 기뻐할거야... 마침내 데레사가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여명을 보게 되겠지. 데레사는 네가 동정녀들의 베일을 한 번 더 쓰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지켜볼까. 서원하던 날 예수님께 당신 혼자서만 널 차지하시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데레사였지 않겠니... 나의 작은 레오니는 점점 더 겸손하고, 순종적이면서, 사랑스럽게 되어야만 할 거야... 잘 지내. 사랑하는 작은 동생. 네 가족들, 지상의 가족들과 천상의 가족들 모두,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심지어 너의 작은 가르멜 자매들도 함께 말이야. 왜냐하면 사랑

에는 두 날개가 있고, 마음과 영혼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데레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마렴.

### 수도복 재 착복

1899년 6월 30일에 레오니는 수도복을 착복할 생각에 분명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을 것이다. 방문회 수녀원 성당에서 르바세르 신부가 강론을 했다. 레오니의 성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성 바오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공동체 수녀들은 틀림없이 그 말씀에 상당히 감동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수녀들은 제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젊은 여성(레오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레오니의 마음은 자아포기와 더불어,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서 늘 당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함께 걸으셨던 길고 험난했던 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다. 기쁜 마음으로 레오니는 데레사가 자신의 방문회 언니 수녀가 마음의 겸손함을 얻도록 도와주려고 천국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주례 사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레오니는 데레사가 선종한 지 21개월 만에 그녀의 광채가 이미 수녀원의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음을 깨닫고는 크게 감격했다.

수도복을 착복하면서, 레오니는 최종적으로 프랑소와 페레즈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몇 년 전에 데레사가 “레오니 언니는 제 이름과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이름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예견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레오니의 착복식을 기념하는 상본에는 가르멜 수녀원 내정

에서 십자가를 꺼안고 있는 수련자였을 때의 데레사의 사진이 찍혀있었다. 그리고 상본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있었다.

프랑소와 페레즈 수녀의 착복식

(레오니 마르탱)

1899년 6월 30일

레오니는 착복식 날 언니 동생 수녀들에게 “작은 레오니가 이름뿐 아니라, 홀로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분의 마음을 언짢게 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레오니는 장상인 잔 마르게리트 데카펜트리 수녀가 착복식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해 주었던 말을 떠올리기를 좋아했다. “수도생활을 품어 안고자 갈망하는 당신의 인내심과 우리의 거룩한 성소에 대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우린 희망합니다. 친애하는 수녀님. 당신의 바람이 충만하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 말이지요.” 바로 이 수녀가 레오니가 세 번째로 방문회에 재입회하기 바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그녀를 알아요, 그녀의 영혼은 상당히 순종적인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던 같은 장상 수녀였던 것이다.

### 수녀원 유머

꾸준한 노력으로 오래전의 반항아는 유순하고 온순해졌다. 레오니는 순명하는 태도에다가 단순함과 쾌활함까지 더했는데, 너무 많이 단순해지고 쾌활해져서 동료 수녀들이 이따금씩 놀랄 정도였다. 하루는, 레오니가 동료 수녀들 중 한 사람의 목을 부둥켜안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이 작은 수녀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충만함은 단순하면서도 꾸밈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충만함으로 인해 레오니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고통들이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일하는 데 굶뜨고, 상식이 부족하며, 사소한 일에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게 열중하는 것 때문에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 레오니는 멀리 쫓아버릴 수도 없는 되풀이되는 굴욕감과 고통을 점점 더 겸손하고 온화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았다. 하지만 데레사가 자기의 아주 보잘것없는 것조차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봉헌을 통해 데레사가 삶을 살아냈고 사랑으로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기뻐했던 것이다.

레오니는 기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위로를 얻었다.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레오니는 휴식시간에 쾌활함과 유익한 유머, 장난스러움, 동료 수녀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시도한 천진난만한 농담으로 그런 어린이다움을 드러냈다. (그렇게) 방문회 수녀원에서는 휴식시간과 축일에 늘 형제적인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다.

수녀원에서의 삶에는 늘 유머가 뒤따랐다. 어느 날 저녁에 주님 공현을 경축하는 축제의 일부로서 게임을 하는 동안, 레오니는 그 날의 여왕이 될 정도로 매력을 발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기 침대가 적어도 6개의 온수병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온수병들은 동료 수녀들이 “여왕(레오니)” 이 추위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사실을 재미있게 강조하려고 놓아두었던 것이다! 레오니는 이불 사이에다가 온수병 하나만 남겨두고

서는, 나머지 온수병들을 자기와 마찬가지로 노르망디 지역의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었던 수녀들 침대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장난스럽게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레오니는 더없이 행복했다. 1899년 8월 말에 그녀는 성심의 마리(언니 수녀)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난 더할 나위 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가장 어렸던 시절만큼이나 멀리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볼 때, 예수 성심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와 너무 감격스러워. 그분께선 날 그렇게나 많은 사랑으로 감싸 주셨고 이렇게 가장 사랑스러운 천국 입구에다가 날 놓아주셨거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면서 죽을 곳이기도 한 이곳에 말이지.”

### 레오니가 서원을 준비하다

수련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레오니는 평온한 마음으로 서원을 기다렸다. 그녀는 데레사가 그랬던 것처럼 원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바로 마리아께서 레오니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위한 예복” 을 마련하게끔 도와주셨을 것이다.

1900년 5월 13일에 레오니는 외삼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전 마침내 항구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방문회 이모가 했던 예언이 글자 그대로 실현된 거지요. 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작은 자로 남을 거예요. 그저 아주 보잘 것 없는 방문회 수녀로 말이에요.”

마르탱 씨는 레오니에 대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들 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말했는지 모르겠다. “레오닌 결국 간신히 해냈구나!”

레오니는 첫영성체 날에 그랬듯이, 서원을 위해 자신의 내면과 주위의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 동생들에게 편지를 써서, 암울했던 어린 시절 동안 수없이 언니 동생들을 슬프게 했던 일에 대해 용서를 청했다. 1900년 6월 17일에 만언니 마리가 다음과 같이 답장을 했다. “그 모든 일들은 오래 전에 잊어버렸단다. 게다가 그런 슬픔들은 네가 마음먹고 저지르지 않았던, 고의가 아닌 상처들이었지. 오늘 우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레오니) 네가 정말 서원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할 정도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단다! 바로 우리 데레사가 이런 기적의 은총이 이루어지게끔 천국을 향해 우릴 떠났던 거지.”

세 명의 가르멜 자매들은 작은 방문회 수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1900년 7월 1일 마리가 다시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써 보냈다.

그렇게 멋진 날 전날 밤에 내 마음 전부를 너에게 어떻게 다 말해줄 수 있겠니? 불가능하지 않겠니. 난 그저 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단다. 곧 너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 내일 년 영원히 그분의 신부가 될 거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놀랄만한 일일 거야. 왜냐하면 그분께선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가엾은 피조물을 애써 찾으려 하셨으니까 말이지... 오, 사랑하는 작은 동생. 마침내 네 차례가 되었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감사로 흘러넘치고 있단다! 그렇게나 많은 소망과 그렇게나 많은 눈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너 역시 동정녀의 영예를 얻었던 거야... 내일 아침 9시에, 우린 사랑과 기도로 널 에워쌀 거야. 우리가 너한테서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렴.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영혼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

네 결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실 거야. 그리고 작은 방문회 수녀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했던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쁨으로 찬란히 빛나고 계신 우리 이모, 그리고 그렇게나 행복한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네 명의 어린 천사들이 에워싼 우리 데레사. 그래, 천국의 모든 이가 내일 기뻐할 거야.

난 널 위해 복되신 동정녀 성상 받치에 화환을 놓아두었어. 넌 그분을 알고 있겠지. 바로 우리 집에서 모셔온 분, 데레사에게 미소지어주셨던 바로 그분 말이야. 심지어 난 그 성상 목둘레에 화환을 걸어두었고, 우리 모두 그 화환에 입맞춤했지. 우리가 그 화환을 봉헌했으니 얼마나 기뻐했니!... 안녕. 사랑하는 작은 동생. 오늘, 난 너에 대한 기쁨과 애정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성심의 마리, 작은 언니로부터.

레오니의 외삼촌 게렝 씨 역시 다정하게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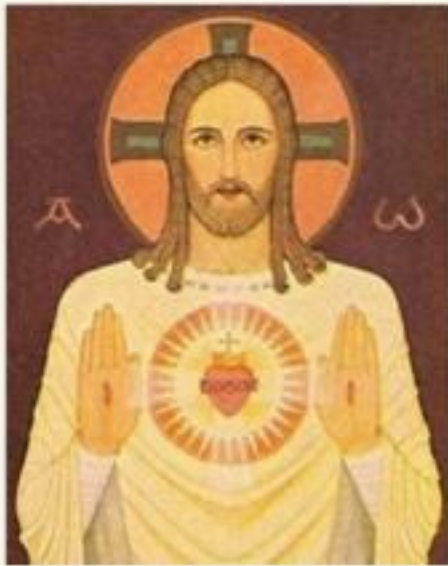
수많은 역풍이 네 항해를 가로막았었지. 왜냐하면 하느님께선 네가 성숙해지도록, 네가 애써 찾았던 훌륭한 영예에 걸맞게 널 만드시기 위해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겠니. 의심할 여지없이, 지금의 결과는 하느님

께서 네 인내심에 보답하시려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은총 덕분이겠지. 난 네 기쁨에 함께하고 싶구나, 딸아. 왜냐하면 난 네가 받은 영예의 한 몫이 우리에게도 반영되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넌 정말 오랫동안 우리에게 마치 딸처럼 여겨지지 않았었니? 우린 네가 완력으로 나아가게끔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단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 사명이 끝나지 않았겠니. 사랑하는 애야, 우리 함께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리자꾸나.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린 네가 상냥하게 함께 지냈던 것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있단다.

이 편지는 1900년 5월 13일에 레오니가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레오니는 그 편지에다가 서원 소식을 알렸던 것이다. 또한 그녀는 예의바르면서도 솔직하게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다. “외삼촌은 제 앞날에 대해 무척이나 걱정스러워하셨지요. 특히나 제 수도 성소를 믿지 않으셨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외삼촌, 그러셨던 건 정말 이해할만해요. 결국 지난 13년 동안 믿지 않으셨던 셈이네요.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다음 호에 계속)

## 수방에서



거룩하신 마음인 예수성심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느님 사랑의 드러내심입니다. 저 멀리 우주 저편에서 홀로 고고히 초연하게 인간을 감독하시듯 바라보고 관조하시는 제3자로서의 초능력자 또는 죄인인 인간을 꺼려하며 거리두기를 시전하시고 우주의 주재자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숭고한 하늘에 홀로 머무는 위대함을 포기하시고 사랑 때문에 연약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피와 땀과 한숨과 눈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시고 먹히는 존재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모두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완성이며 최상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아줍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다가오는 주님 사랑의 부르심에 나의 마음 전부를 담아 응답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 사랑을 보듬어 안으시는 성모님의 거룩한 마음 닮아가는 좋은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광서(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옹달샘 \*

##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신 하느님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실체변화된 성체 안에는 참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요한 6, 54)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난 전날 저녁 최후 만찬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미사 성체 중에, “우리에게 은총과 힘을 주시는 성체를 영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며, 이 빵의 형상이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연한 밀랍(촛불이 식어서 꾸덕하게 굳은 상태)에다 인장(도장)을 눌렀다 떼면 거기에 자국이 남는 것처럼 당신의 은총을 자국으로 남기며, 신적 사랑의 온기가 거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성녀 시에나의 카타리나 「대화」 112번 참조)

감실 앞에서 성체조배를 하는 것이 좋지 만, 고요한 곳이나 방에서 또 어디서나 적합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내 안에’ 계실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체를 모신 곳을 감실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움직이는 ‘이동 감실’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므로 태중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흠송하셨습니다. 늘 예수님을 흠송하고

사랑하셨으며, 지금 감실 안에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계신 예수님을(전 세계의 감실마다) 위로해 드리시려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그리고 연옥에서 정화되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의 탄원과 함께, 찬미와 감사, 사랑과 흠송을 드리시고 계십니다.

감실의 성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묵시 3장. 라오디케이아 교회 참조)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는 마음으로 자주 찾아뵙고, 서로 정(情)을 나누며, 친교와 일치룰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주님과 일치되는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만유 위에 흠송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였으므로 3분 이상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성녀께서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시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 말씀하시면서 아름답고 고운 미소 중에 운명하셨습니다.\*

\* 5월 회보 13쪽 ‘월계관’ 을 ‘원 제관’ 으로 바로 잡습니다.

\* 자서전 연구 \*

##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 (37)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 2.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성: 그리스도론적 사실 (계속)

그로부터 12년 후, 성녀는 『영혼의 성』(6궁 8, 2)에서 이 체험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지성적 현시’(visión intelectual)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런 교양어는 성녀에게 차고 넘친다. 이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녀는 ‘지성’으로 이 현시를 감지하지 않고, ‘인식’의 영역 속에도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분의 현존은 생명이다.

(그로부터 몇 세기 후, 19-20세기로 넘어와서 성녀 데레사가 여기서 묘사한 사실은 정신 분석가와 신경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와 심리 분석가에 의해 서서히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또한, 모렌테(Morente)라는 철학자도 그 사실을 분석했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비교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체험은 단지 유일하고 고립된 ‘특별한 사실’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성녀 데레사의 체험은 몇 년간 지속되었다.)

\*

b) 새로운 소통 방식인 ‘신비적 말씀’: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성녀가 계속해서 들었던 ‘내적 말씀들’의 주체가 누구인지 드디어 분명하게 드러

나기 때문이다. 또한, 성녀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외적 체험에서 신비로 둘러싸인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친교 방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녀는 이를 “말씀 없이도 이야기하시는”(habla sin hablar, 6절) 방식으로 불렀다. “이밖에도 하느님께서 영혼을 가르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없이도 이야기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천상적이라 주님께서 몸소 경험으로써 이것을 가르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로는 그것을 알아듣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알려주고 싶은 일을 영혼의 가장 그윽한 곳에 새겨 주시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시와 마찬가지로 영상도 없고 말의 형상도 없이 영혼 안에 그걸 나타내십니다”(상동). 성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했다: “이런 종류의 현시나 말씀은 어떠한 지극히 영적이므로, 우리의 능력들이나 감각들 가운데는 악마가 뭔가를 꼬집어낼 수 있는 큰 소란이 전혀 없습니다”(7절).

다시 말해, 앞서 받은 말씀들(24-26장에서 언급된)은 ‘구체적인 말씀’이자 ‘형성된 말씀’이다. 반면, 본 장에서 제시된 말씀들은 ‘지성적 현시’와 유사한 소통의 메시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영혼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방식과 그분이 알려주길 원하는 것이 위대한 진리와 신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어떠한 소음도 없는 비밀들과

진리들이다.

### 3. 감동의 파도와 그 신비 전수적 역할

제27장의 후반부는 신비 전수적 (mistagógico) 톤을 활용했다. 즉, 이 부분의 저자인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 속으로 독자를 인도하고 있다. 성녀는 그리스도적인 은총을 받은 지 5년 후에 대해 전하고 있다. 성녀는 지금 펜으로 글을 써 내려가며 당시를 회상하는 가운데, 그때 지냈던 아주 깊은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감동은 지극히 내밀하고 깊은 '내면' 속에 폐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독자이든) 독자에게 넘쳐흐르는 가운데 확장하는 파도가 되어 리듬을 잃은 채 조금하게 그를 에워싼다. 11절부터 21절까지의 긴 구절은 성녀가 자신의 감동을 내려놓는 작업에 고삐를 풀어주고 있다.

성녀의 감동은 하느님을 향한 외침에서 시작되어(11절: “오, 감탄하올 하느님의 인자하심이어! 제 영혼의 눈처럼 이렇듯 악한 눈이 당신을 뵈는 걸 허락하시다니요!”) 온 세상에 이른다(11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하느님이 성녀 자신과 성녀의 첫째 독자인 가르시아 신부에게 돌아가 “소리를 내도록” 청하셨을 때, 성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녀가 처한 여인의 신분으로 인해 그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녀를 둘러싼 일종의 물결에는 나약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지나가신 것에 관해 소묘조차 하지 못하는 “수사, 성직자, 수녀까지” 있었다.

성녀는 이러한 물결의 정점에서(16-20절)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의 모습을 상기했으며, 이를 자신이 간직한 감동을 펼쳐 보

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베드로 수사는 이미 본 장의 전반부에서 기억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베드로 수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녀의 체험에 대해 식별하고 조언하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미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드러난다. 즉, 그는 사랑에 미친 사람이자 성인들의 광기(狂氣)를 모방한 인물이며 사랑의 공범자로 소개되고 있다. 성녀는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분의 여원 모습은 극도에 달해 마치 나무뿌리로 만들어진 사람 같았습니다”(18절).

이처럼 성녀의 신비 체험(이런 최고의 그리스도 체험)은 다시 한번 성녀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갇힐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존은 발산하는 힘의 중심이 된다. 즉, 그분의 현존은 성녀 데레사를 하느님의 예언자이자 변호인으로 만드는 원심력의 중심이 되게 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침착함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보다 자신에게 쇄도해 들어오는 종교적인 감동을 공유하는 가운데 이 글을 읽도록 촉구하는 이가 되게 한다. 27장 전체는 『자서전』의 문학적이고 신비 전수적인 방식을 잘 드러내는 진정한 전형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5인조의 저항은 다음 장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다.

### 제28장: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강렬해짐. 검열하는 그룹의 반대가 다시 일어난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성녀 데레사의 내적 사건들에 집중된다. 그것은 성녀의 신비 생활에 있어 정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체험들을 말한다. 이는 일련의 상상적 현시의 시작이기도 하다. 본 장의 전반부는 이 주제를 위해 할애되고 있다(1-12절).

새로운 신비적인 사실을 둘러싸고 5인조 검열인들이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성녀 데레사와 그가 체험한 현시들을 거슬러 반대가 심해졌다. 이제 성녀를 둘러싼 이런 반대는 성녀의 고해사제인 예수회원 발타사르 알바레스(B. Alvarez) 신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다. 5인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알바레스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신부님에게 드리는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악마에게 속지 않도록 저를 경계하라고 사람들이 그분께 말했다는 것입니다”(14절). 성녀는 이런 극적인 반대를 설명하기 위해 본 장의 후반부를 할애했다(12-18절).

이러한 설명 중에는 이 책의 제1독자인 가르시아(García) 신부와의 대화가 종종 등장한다. 본 장의 2-3절 사이에 등장하는 ‘신부님’(vuestra merced)이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가르시아 신부이다. 그로 인해 성녀는 자신이 새로 경험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은총들에 대한 현재 이야기를 짚막하게 줄였다. 왜냐하면, 성녀는 이미 별도로 서면을 통해 그에 대해 가르시아 신부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암시하고 있다. “신부님께서 이 일을 말하도록 제게 많이 명하셨을 때, 신부님께 개인적으로 써 드린 대로, 주님은 제게 지극히 아름답고 위엄 있게 나타나셨습니다. 신부님의 명령은 제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다루기엔 저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잘 말씀드렸으니 여기서 재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3절).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보고서는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는다. (본 장 내내 드러나는 이상한 일은 가르시아 신부가 성녀 데레

사의 견해에 반대하는 이들을 직접 대면해서 성녀를 위해 변호하기 위해 논쟁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본 장의 윤곽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다.

- 1-3절: 사실들, 그리스도의 ‘발현들’
- 4-13절: 그에 대한 설명. 상상적 현시는 어떠한가(4-10절), 그것이 악마의 계략과는 어떻게 다르고(10.12-13절), 심리적인 속임수와는 어떻게 다른지(11절...) 설명하고 있다.
- 12-18절: 반대하는 조언자들의 동요
- 이야기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성녀 데레사의 기도가 있다(8-9절).

## 1.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체험

본 장의 제목은 그 내용을 다음의 3가지 진술로 요약한다. ①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들을 다룬다. ② 그분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어떠한지 다룬다. ③ 상상적 현시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격찬과 함께 끝난다: “이 장은 매우 유익하고 주목할 만하다.”

새롭고도 중심적인 사실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다. “성 바오로와 관련된 어느 날, 미사 중에 저는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인성 전체를 볼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그린 것과 같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일을 말하도록 제게 많이 명하셨을 때, 신부님께 개인적으로 써 드린 대로, 주님은 제게 지극히 아름답고 위엄 있게 나타나셨습니다”(3절).

성녀 데레사와 관련된 연대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 바오로와 관련된 어느 날”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볼 때, 1561년 1월 21일이다. 이날 전례는 “성 바오로의 회심 축일”을 기념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현으로 인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발현하신 주님은 이 축일 전례에서 분명하게 현존해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사도 바오로의 신비 체험과 명시적으로 연관 짓지는 않았다. 실제로, 성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첫 번째 현시 체험이 “영광스러운 성 베드로와 관련된 어느 날”(자 27, 2)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고 정확히 언급한 바 있다. 두 체험 사이에는 7개월의 간격이 있다.

성녀 데레사에 따르면, 성 바오로와 관련된 어느 날 있었던 이 ‘첫 번째 발현’은 일련의 상상적 현시가 짧게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성녀의 말에 근거해서 그렇다. 첫째,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극찬으로도 모자랄 만큼 지극히 아름다운 손만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1절). 둘째, “며칠 후에는 그분의 신성한 얼굴을 뵈었고, 저는 온통 넋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상동). 셋째,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인성 전체”(3절)가 그것이다.

성녀는 이를 언급함에 있어 3가지 현시 형태를 분명하게 구별했다. 가장 마지막에 부르게 될 ‘지성적 현시’(자기 곁에 계신 주님의 현존에 대한 첫 번째 체험: 27장), 방금 지적한 이 3가지와 같은 ‘상상적 현시’, 그리고 시각과 더불어 감지되는 ‘육체적 현시’가 그렇다. 성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비록 신비적인 삶에서 주님의 ‘육체적 현시’를 선호한 적이 있지만, 결코 이를 얻지는 못했다(4절).

이런 새로운 현시들(주님의 손, 얼굴, 인성)이 지닌 새로움은 단지 그분의 현존이나 행동을 감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그분 자신을 보는 것에 있다. 성녀는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분으로 주님을 보았다. 그분은 인간 존재로, 육체를 지닌 분으로 드러났다. 그분은 형언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장엄하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성녀의 영혼에 끌로 새겨질 만큼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주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은 영혼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말씀드릴 것처럼, 하느님의 뜻으로 영혼이 커다란 메마름과 고독을 참아 견뎌야 하고 하느님마저 잊어야 할 것 같은 경우가 아니고선, 그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9절). “그분이 지니신 영광은 넋이 나갈 만큼 지극히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입니다”(2절). “단지 저는 천상에서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영광스럽게 변모된 육신들의 뛰어난 아름다움만을 본다고 해도,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뵈는다고 해도, 지극한 영광이라고 말씀드립니다.”(3절).

이는 그 자체로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현시이다. 이로 인해 이러한 현시는 다른 현시들과 혼동되지 않는다. 우선, 그것은 끌로 새겨날듯이 영혼 깊이 남는 심리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특히, 인간 인격을 비롯해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도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 생각엔 그 영혼은 가장 높은 단계에서 하느님에 대한 생생한 사랑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9절). 이러한 효과들은 성녀에게 식별 기준들로 사용되는데 필요했다. 우선,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현시가 상상이라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11절)이다. 그다음으로,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효과들은 가능한 악마적인 계략들로부터 이런 참된 현시들을 식별하는 데 필요했다(12절). 이후, 즉 신비 체험이 점차 증가하는 과정에서 성녀 데레사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형태의 현시, 즉 지성적 현시와 상상적 현시를 감지하게 된다. 그에 반해, 육체적 현시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다음 호에 계속)

\* 선교 \*

## <문화 적응주의 선교>의 선구자 마태오 리치 신부의 생애 (下)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마태오 리치 신부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수용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마태오 리치 신부의 노선을 따랐다. 마태오 리치 신부 때부터 불교도들로부터 반교(反敎)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먼저 북건성에서 반교 운동이 일어났다. 금릉(金陵) 대은사(大恩寺)의 유명한 선승 삼회(三淮)는 남경 출신이다. 1599년에 마태오 리치 신부는 남경에서 삼회 승려와 종교에 관해 논쟁한 일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불교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광동성 소주(韶州)의 남화사(南華寺)의 승려들과 지주나 퇴직 관리 등의 세도가들에게 적의를 불러일으켜, 중국인 수사 황명사가 감옥에서 옥사하게 되었고, 소주 성당이 봉쇄되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서문화교류사(中西文化交流史)에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하였다. 그는 중국 문화를 서양에 전하고, 서양 문화를 중국에 전하였다. 그는 특히 서양의 천문학, 자연과학, 수학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그렇게 하여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의 천문학, 수학, 지리학, 사상, 언어, 미술, 음악, 학술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천문 역법 지식을 중국에 전하고, 천문의기를 제작하였다. 그는 남경에 거주하고 있을 때, <지구의>, <상한의>, <기한의(紀限儀)> 등을 제작하였다. 명나라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서양인 리마두(利瑪竇)가 <혼천의>, <천구(天球)>, <지구의> 등을 제작했다고 되어 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남창에서 '천문학자'라는 칭호를 들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북경에 거주하게 되면서 서광계와 이지조에게 천문학을 가르쳤다. 망원경은 1608년 네델란드에서 발명되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도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 때 정중기의 저술 <이신> 7권에 기록이 나온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의 지리학 방면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서양 지리 지식을 처음으로 중국에 전하였다. 16세기 중엽 서양에서는 평면투영법으로 지도를 그렸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이 지도 제작법을 중국에 전하였다. 그는 중국 대도시의 경위도(經緯度)를 측정하였다. 그가 남창의 위도를 측정한 결과 북위 29도였으며, 남경의 위도는 북위 32도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1차 측정 때는 북경에서 배를 타고 운하를 이동하면서 위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수치는 양주(揚州) 32도, 회안(淮安) 34도, 소주(蘇州) 34.5도, 북경 40도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가 측정한 수치와 정밀한 현대식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는 놀랍게도 거의 일치한다. 그는 북경, 남경, 대동, 광주, 항주, 서안(西安), 태원(太原), 제남 등 여덟 개 도시의 경위도를 기록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세계의 문물과 풍속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그는 세계 각지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아세아(亞細亞) 지중해(地中海) 라마(羅馬: 로마: Roma) 등은 마태오 리치 신부가 중국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의 수학(數學)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서양의 산법(算法)을 구태소에게 가르쳤다. 그리하여 마

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에서 ‘수학가’ 라는 칭호도 들었다. 그가 로마 대학에 유학할 당시 유명한 수학가이자 천문학자인 크리스토퍼 클라비우스 교수로부터 수학을 배웠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에 올 때 클라비우스 교수가 저술한 수학책을 가지고 와서 북경에 있는 성당인 남당(南堂)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또 그는 서광계에게 기하학(幾何學)을 강의하였다. 기하학은 천문학이나 지리학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태오 리치 신부는 서양 철학(哲學)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그는 <천주실의>에서 서양 철학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 이후로 여러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철학과 신학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 언어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에 서양 미술과 서양 음악 지식을 전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가 중국의 황제에게 진공한 <그리스도상>과 <천주 성모상>, 아기 예수를 안은 성모와 세자 요한상 성화는 중국인들에게 서양 미술을 처음으로 접하게 하였다.

중국 지식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양 과학과 지리학을 받아들였다. 그 중에 이지조, 기광종, 광자장, 풍응경, 웅명우, 양정균, 구태소, 서광계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양 수학과 천문학의 우수성, 서양 지도학이 보여준 정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지조는 1601년 여러 차례 마태오 리치 신부를 만났다. 그는 중국의 전통 제도학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마태오 리치 신부에게서 서양 제도학에 대해 배웠다.

마태오 리치와 같은 시대에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알메이다 신부, 까타네오 신부, 장 다 로샤(Jean da Rocha 중국명 羅儒望) 신부, 가스파르드 페레이라 신부, 사바피누스 데 우르시스(Sabbathinus de Ursis 중국명 熊三播) 신부, 임마누엘 오

벨류 디아스 신부, 니콜라스 롱고바르디 신부, 프란치스코 데 페트리스 신부, 에두아르도 산데 신부 등이다. 이들은 마카오, 조경, 남경, 항주, 북경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세상을 떠날 무렵에 조경, 소주, 남창, 남경, 북경, 상해, 항주에 성당을 건립하고 선교 활동을 하였다. 소주에는 1589년 성당과 수도원을 건립했으며, 카타네오 신부가 와서 선교를 하였다. 남창에는 1595년에 성당을 건립하고, 1607년에 성당을 크게 신축하였다. 남경에는 1599년 4월에 성당을 건립하였으며, 북경에는 1605에 성당을 건립하였다. 상해에는 서광계와 카타네오 신부가 1608년에 성당을 건립하였는데, 이미 2년 전에 서광계의 부인과 부친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다.

1606년 광주에서 “포르투갈인들이 반란을 도모하고, 까타네오 신부가 황제를 퇴위시키려 한다.” 라는 유언비어가 퍼져 교회를 긴장시켰다. 그해 우르시스 신부가 중국에 새로 왔고, 발리냐노 신부가 세상을 떠났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 예수회 관구장 신분으로 북경, 남경, 남창, 소주, 상해 등지의 선교활동을 지휘 감독하였다. 각 지역의 본당마다 두세 명의 선교사가 사목을 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이런 바쁜 일과 중에도 황궁에서 부르면 입궁해야 했고, 관리들과 학자들이 방문하면 영접을 해야 했고 그렇게 바쁜 중에도 여러 가지의 저술도 병행해야 했다. 어느 때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계속 접대하느라 제시간에 식사를 못하여 자연히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다. 그는 나이 육십도 되지 않아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섰다고 한다. 북경에서 성당을 신축할 때, 마태오 리치 신부는 모금 활동을 하고, 그 추운 겨울에 일일이 공사를 감독하며 일을 추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다.

1610년 5월 3일, 마태오 리치 신부는 손님을 배웅하고 난 후, 갑자기 심한 두통으로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렸다. 사람들이 서둘러 침상에 눕게 하였는데, 밤이 되어도 여전히 두통이 가라앉지 않고 심하게 열이 났다. 이지조가 황궁을 출입하는 어의(御醫)를 데려와서 진찰한 결과 유행성 감기라고 하며 약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해도 병세는 여전히 차도가 없었다. 다시 다른 의원 세 사람을 연거푸 불러와서 진찰하였으나 진찰 결과는 모두 달랐다. 많은 교우들이 마태오 리치 신부가 중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 왔다. 어느 교우는 조선 인삼이 좋다고 가져와서 복용하기도 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5월 8일 우르시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고, 5월 11일 오후 6시경에 만 57세 7개월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610년 5월 3일 마태오 리치 신부의 발병 소식을 듣고 퉁고바르디 신부가 북경으로 왔다.

마태오 리치 신부가 임종한 후, 그는 마태오 리치 신부의 자리를 이어받아 예수회 중국 선교구 회장직(관구장)을 맡고, 마태오 리치 신부의 장례를 주관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가 임종한 후, 중국인 유문휘(游文輝) 임마누엘 수사가 마태오 리치 신부의 유용(遺容)을 그렸다. 이지조는 잣나무로 짠 백목관(柏木棺)을 제공했으며, 우르시스 신부, 뽀또하 신부와 장지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지조와 뽀또하 신부는 황제에게 마태오 리치 신부의 장지(葬地)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1610년 10월 19일, 중국 황제는 부성문(阜城門) 밖 책란(柵欄) 땅을 마태오 리치 신부의 묘지로 하사하였다. 1610년 마태오 리치 신부가 세상을 떠날 무렵 중국 전역에 교우는 2,500명 정도 되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의 관은 북경 남당으로부터 스물네 명이 운구하여 책란 묘지에 안장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의 묘는 서

양식과 중국식이 합쳐진 형태로 묘는 서양식, 묘비는 중국식으로 하였으며 벽돌로 묘혈을 쌓았다. 이듬해 4월 22일에 마태오 리치 신부의 묘지 옆에 육각형 구조의 작은 정자를 완공하고 성묘를 위한 성당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실내는 그리스도 성화와 성모 성화를 걸어놓았다. 마태오 리치 신부가 책란 묘지에 안장된 후, 이곳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되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박학다식하고 통찰력이 비범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거의 3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문(漢文)으로 20종 이상의 저서를 썼다. 그는 과학 서적 외에도 종교, 윤리, 철학에 관한 저술도 남겼다. 그가 저술하여 1595년에 출판한 교우론(敎友論)은 당시 중국 사회의 학자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읽혀졌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1594년에 중국의 사서(四書)인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중국의 핵심 전통 사상을 서양에 소개하는 일을 끝마치고 나서 <천주실의(天主實義)> 집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603년에 북경에서 출판하였다. <천주실의>를 <천학실의(天學實義)>라고도 하는데, 초고는 1595~1596년에 완성되었다. <천주실의>는 중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볼 수 있으며 지식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천주실의>는 우리나라 천주교회 성립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1604년에는 일본어로도 번역 출판되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천주실의>에서 유교, 불교, 도교 사상과 천주교 교리, 중세 철학을 비교 분석, 고찰함으로써 중국과 서양 사이는 물론, 동서양(東西洋) 간의 사상교류사(思想交流史)에서 획기적인 저술로 평가를 받고 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유가(儒家)와 천주교 교의(敎義)를 융합하고자 하였다. 그는 유교는 받아들이고 불교는 공개적으로 공

격하였다. <천주실의> 외에도 그가 저술한 <기인십편(畸人十篇)>과 <변학유독(辯學遺牘)>에도 ‘보유역불(補儒易佛)’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1608년 봄, 마태오 리치 신부는 북경에서 <기인십편(畸人十篇)> 상, 하 2권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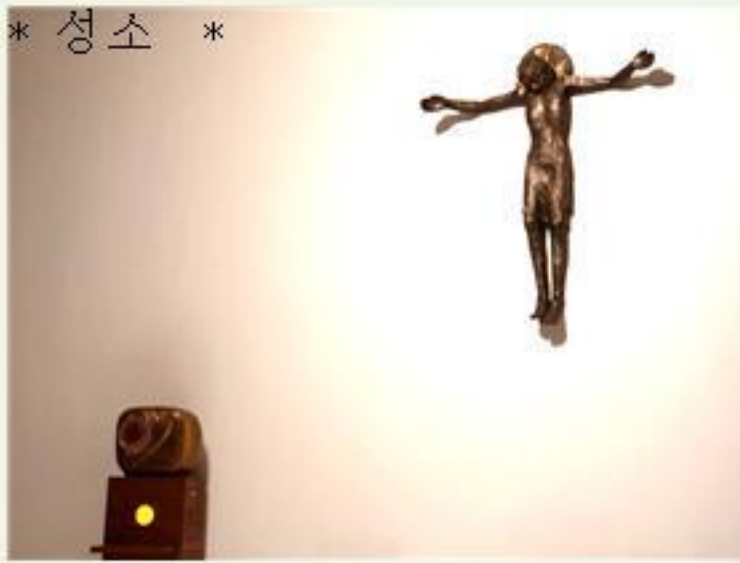
이 책의 권말 부록 <서금곡의팔장(西琴曲意八章)>에는 서양 음악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마태오 리치 신부는 이것을 선교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이 책을 중국 황제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것이다. 이 책은 서광계, 이대, 풍기 등 마태오 리치 신부와 친분이 깊은 중국 학자들과 저자 자신과의 대담 형식을 빌린 대화체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사후(死後) 심판, 생사(生死)문제, 사욕(邪慾)억제, 윤리문제 등 천주교의 주요 교리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질문에 마태오 리치 신부가 답하면서 중국 전통 신앙이나 미신, 불교, 유교에 대해서 비판, 토론하고 있는데 이 책은 중국의 사대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1604년에 북경에서 소책자 <천주교요(天主敎攬)>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크게 읽혀지지 않았으나 마태오 리치 신부가 쓴 호교서(護敎書)이며 그의 선교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가 이와 같은 의도로 저술한 <변학유독>도 1610년에 출판하였다. 그리고 1605년에 마태오 리치 신부가 저술하여 출판한 <이십오언(二十五言)>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로마 제정시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에픽테투스(Epictetus: AD 55~135년)의 잠언집 <엔케리디온(Encheridion)>을 중국 문화와 중국인 정서에 맞게 편역한 도덕에 관한 저술이다. 마태오 리치 신부가 쓴 <천주실의>, <교우론>, <이십오언> 등은 중국 중류 사회에 상당히 널리 유포되었으며, 중국 학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당시 중국 문인들

은 천주교의 윤리와 도덕에 관한 책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대부들도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또 마태오 리치 신부는 한자(漢字)에 알파벳 표기법을 시도하여 1604년에 <서자기적(西字奇跡)>을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중국의 한자에 라틴어 음을 붙인 것이다. 그는 또 1605년에 천주교 도리에 대한 책인 <건곤체의(乾坤體義)>를 저술하여 출판하였다. 1607년에는 중국인 학자 이지조와 함께 <혼개통헌도설>을 공동 번역하여 북경에서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책력(冊曆)과 산술에 관한 과학 서적이다. 1609년에는 이 두 사람이 천문학과 수학에 관한 책인 <환용교의>를 10여 일 만에 서로 말하면서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다. 기하학의 원조인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원본>을 1574년에 로마에서 간행하였는데, 1607년에 마태오 리치 신부가 이 책 전 6권을 번역하여 <기하학원본>이라는 이름으로 북경에서 출판하였는데, 중국의 사대부 학자들이 이 책을 경쟁하듯이 읽게 되어 그는 더욱 존경을 받게 되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로마에서의 그의 스승인 크리스토퍼 클리비우스 교수가 쓴 <실용수학> 전문을 번역하고, 여기에 제곱근, 세제곱근 등의 수학 공식을 덧붙여 <동문산지(同文算指)>를 전술하였는데, 이 책과 함께 측량술에 관해 그가 저술한 <측량법의(測量法儀)> 등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출판하여 중국 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국 학자인 구태소는 마태오 리치 신부에게 아라비아 숫자와 서양식 계산법을 배워서 널리 전했다.

마태오 리치 신부의 마지막 저서는 <기독교원피중국기(基督敎遠被中國記)>인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예수회 트리고우 신부는 이 원고를 로마로 가져가 라틴어로 번역 출판하였다.(끝)\*



## 가르멜로(路) 74-54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 꿈에 대한 단상

며칠 전 꿈을 꾸었다. 상당히 인상적인 꿈이었는데, 아쉽게도 늘 그럴듯 꿈 내용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끝내야 할 과제가 다섯 가지나 되는데, 아직 한 가지 과제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옆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난 뒤에 물을 내렸는데, 그만 변기가 막혀버렸는지 안 내려가고 가장자리까지 차올랐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거 어찌지' 하는 도중에 잠이 깨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는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변기가 막혀 내용물이 넘치기 거의 일보직전이었던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기분이 참 묘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하루 사는 데만 급급해서 정작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미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이다. 사실 삶이라는 것이 무한정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삶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정리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그저 펼쳐놓기만 하는 것이다. '넓고 복잡하게 펼쳐진 삶의 조각들을 이제는 모아들이고 정리 정돈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는 살아내야 할 하루하루의 삶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삶에 대한 정리는 우선순위에 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에 60대 중반의 우리 수도회 신부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 같은 공동체 멤버가 아니라서 같이 살았던 수사님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돌아가신 날 점심식사 때까지만 해도 수사님들과 함께하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저녁기도와 식사 시간에 나오지 않으셔서 수방엘 찾아갔더니 돌아가신 지 이미 2시간이나 지나버린 상황이었다고 한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도 잘 안 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그 신부님의 선종 소식은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신부님 한 분을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도 깊이 돌아보게 된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지나온 삶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과연 하느님을 만나 뵈 그 순간까지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펼쳐 놓은 삶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혹시라도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금방이라도 넘쳐버릴 정도로 꾸역꾸역 담아 놓은 그 많은 삶의 조각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멘붕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당황스럽고 후회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말이다.\*

성 소문의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 행복스런 마음

Corazón feliz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행복하여라 사랑하는 마음 Dichoso el corazón enamorado  
 오직 하나 천주님을 상념(常念)하고 que en solo Dios ha puesto en el pensamiento;  
 그이로 해 피조물 다 버리고 por él renuncia todo lo criado,  
 그이 안에서 영광과 만족을 발견하고 y en él halla su gloria y su contento.  
 자신조차 잊고 사나니 Aun de sí mismo vive descuidado,  
 그의 온 뜻이 천주님 안에 있음이로라 porque en su Dios está todo su intento,  
 이렇듯 그는 기꺼이 짜장 즐거웁게 y así alegre pasa y muy gozoso  
 험난한 이 바다의 물결을 가도다. las ondas de este mar tempestuoso.

### 해설

이번에 소개하는 시는 성녀 데레사의 다른 시들과 비교해서 펍 짧은 편이다. 그래도 이 시에는 영성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한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할 때 느끼는 내적인 만족감과 그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진,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한 영혼이 하느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도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행복감을 담담히 서술하며 노래한 시인데 이것을 풀어헤치면 이런 뜻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 행복하구나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만 늘 마음에 두고  
 그분으로 인해 피조물은 모두 다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영광과 만족을 찾아내면서  
 자신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그의 모든 관심은 하느님께만 쏠려 있기 때문이로다.

그는 이다지도 기쁘게 그리고 참으로 즐기면서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고해(苦海)의 격랑을 헤쳐 지나가는구나.\*

\* 가르멜 프락 \*

## 계양산 십자가의 길

안병희(아기예수의 쯤마)/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아기 단풍나무 기지개 켜는 길  
 님께서 세 번이나  
 넘어지시고 일어나셨다고  
 제비꽃 다소곳이 앉아 얘기하네  
 열 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라  
 손잡아 용기 주신다.

하늘과 숲 맞닿아  
 고즈넉한 수도원 길  
 비비추 너른잎  
 보랏빛 꿀 꽃이 어서 오라 반긴다.

솔바람 마중 나온 곳  
 산새들 노래하는 이곳에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는 날  
 나의 고운님을 찾으오리다.

님의 음성 들은 오늘  
 나를 금강석보다  
 귀하 여기시는 님께서  
 꽃비 내려주시네  
 은총을 내려주시네  
 놀라운 이 길을 함께 걸으오리다.

\* 공동체 이야기 \*

## 은총의 시간(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시편 103,2)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공동체 사랑으로 이어온 70년사

74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재속 가르멜의 원조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의 은총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 서울 성북구 혜화동 대신학교 內 가르멜 여자 수도원에서 대신학교 교수 곧 벨트 신부에 의해 소수의 뜻있는 분 12명과 함께 한국 가르멜 3회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의 전신이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3년 서울 수복 후 혜화동 가르멜 여자 수도원에서 재회합니다. 같은 해, 여자 수도원이 수유리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체도 수유리로 이전을 합니다.

1968년에는 가르멜회 총장님의 인준으로 '한국 가르멜 3회가 정식 발족 됩니다.

1979년 부평 가르멜 수도원을 새 보금자리로 정하고 가르멜 총본부의 결정에 따라 명칭을 '가르멜 재속회'로 개칭합니다.

1988년에는 인천 재속회가 분리되고 1993년에 서울 강남, 강북으로 분리됩니다. 1994년에 당시 세검정성당으로 이전하여 가르멜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서울 가르멜 재속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1999년에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서울 가르멜 산성모 공동체 4개 재속회로 분리가 되면서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가 서울 재속회 50년 역사의 맥을 이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재속회에 입회하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2001년에는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가, 2006년에는 서울 예수성심의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가 분리됩니다.

2008년 재속회 창립 60주년을 지나, 2018년에는 서울 재속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관구장님과 수도회의 신부님, 수사님들과 서울 타 공동체의 회원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르멜의 잔칫날이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을 기념하여 가르멜 수녀원과 지방의 여러 공동체 가족들도 축하인사를 전하며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 70주년 행사는 회원들에게 재속회 원조팀이라는 자부심과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가르멜 공동체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긴 역사를 지닌 우리 공동체는 종로구 부암동 공기 좋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푸르게 우거진 인왕산 숲이 회관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북한산 자락이 훤히 보

입니다. 가르멜의 산길을 오르는 듯 가파르고 좁은 길을 힘겹게 오르면 성 요셉 성인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포근히 안아주십니다. 왼쪽 나무계단을 기분 좋게 오르면 성당 입구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께서 장미 꽃송이를 한 아름 안고 “잘 왔다.” 반기십니다.

공동체 회원 모두가 활짝 핀 미소로 서로를 대하고 인사 소리에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연세 높으신 선배님들과 함께하기에 저희 공동체의 나눔 주제는 아주 풍성합니다. 선배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옛 가르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50년 전 가르멜 수녀님들께서 수도복 만드는 천으로 스카폴라를 손수 지어 주셨던 일, 김수환 추기경님 주례로 착복식을 할 정도로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체험, 최민순 신부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던 일화도 전해줍니다.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하던 수유리 수녀원 한옥 방에서의 연피정과 월모임의 추억, 밤나무 아래에서 하던 피정, 부평 수도원으로 논둑 밭둑길을 따라 밤색 한복을 입고 도시락을 싸서 월모임을 하러 가던 추억들은 후배 가르멜 회원들에게는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 아뢰기만 어느 누구에게도 입을 떼지 않은 채 그 추위, 그 굶주림, 그 퇴락별, 그 한더위를 어떻게 견디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른들이 무쇠로 된 인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섬섬약질이었습니다.”

데레사 사모님이 말씀하신 우리 은수자들의 모습과 가르멜 정신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신 선배님들의 삶이 겹쳐 보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마음 터놓고 하는 나눔은 가르멜의 삶을 살아가는데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굴곡진 시간을 어찌 버텼는지 아스라이 가슴이 아려 오지만, 가르멜 규칙과 미사와 성무일도, 묵상 시간이 버틸 수 있는 끈이었다” 는 나눔을 들으며 가르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충실한 기도의 삶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혜화동에서 시작하여 수유리 수녀원, 인천 수도원, 절두산을 거쳐 지금의 회관에 자리 잡기까지 공동체에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기도와 노고를 소중히 여겨,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1971년 착복 기념

\* 순례기 \*

## 18일간의 숨바꼭질(11)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 산의 성모 공동체

**4일째**(5월 3일 목요일,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폴란드(첸스토호바) - 독일(프랑크푸르트 공항)

### 첸스토호바 ‘블랙 마돈나’

폴란드에서 마지막 날이 밝아왔다. 크라코프 호텔 조식 후 2시간을 달려 성모성지인 첸스토호바에 도착했다.

오늘 일정 안에 들어오신 블랙 마돈나. 검은 성모님. 2000년 전 사도 루카가 그렸다는 야스나고라 성모님.

마침 오늘이 폴란드의 제헌절이라고 했다. 가톨릭 국가답게 국가기념일에도 성모님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 일행이 인파에 거의 휩쓸리다시피 대성당에 도착했을 때는 미사 중이었다. 우리는 신자석 옆에 밧줄로 선을 구분해 놓은 좁은 통로를 따라 무릎걸음으로 제대 뒤를 돌아 나와야 했다. 무릎으로 걷는 왼쪽 벽에는 수많은 목주가 걸려 있었는데, 앞서 걷던 일행 중 한 명이 본인의 목주를 그곳에 거는 모습이 보였다. 이곳의 목주는 청원의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병의 치유를 감사하며 걸어둔 것이라고 한다. 무릎걸음으로 제대 뒤를 돌아 나오면 경당으로 이어진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촛불 봉헌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성모님 승천을 묘사한 화려한 조각품이 경당 정면을 장식하고 있다.

첸스토호바는 소련 치하에서 제철 철강의 공업 도시였다. ‘검은 성모님’ 이 모

셔진 이 언덕이 ‘야스나고라.’ 우리말로 ‘빛의 언덕’ 이라는 뜻이다.

루카 사도는 예수님께서서 만드셨다고 전해지는 성가정의 식탁에 직접 성모님을 그렸다고 한다. 이 성화는 역사적 사건 안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느 날 이곳에 도착했다. 성화를 지니고 이곳을 지나가던 한 영주가 언덕 위의 작은 목조 성당에 성화를 모신 다음 날, 다시 길을 재촉하는데 성화를 옮겨 실은 마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가 1382년이었다고 한다. 성모님께서서 ‘빛의 언덕’ 을 당신의 자리로 삼으신 것이다. 중세에는 성화나 성물에 얽힌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 신비스러운 유래가 오히려 더욱 경외감을 깊게 하는 것 같다.



이후 ‘바오로회’ 은수자들이 그곳의 목조 성당을 중심으로 수도원을 짓고 오늘

날까지 이 성화를 지키며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성모님 얼굴 오른쪽에 길게 난 두 개의 칼자국은 1430년 성화를 욕심내어 억지로 가져가려던 이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얽힌 사연 역시 신비스럽기만 하다.

1717년 폴란드 왕 아우구스트 2세 모츠니의 시대에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폴란드를 당신께 바칩니다”라는 서원을 드리면서 성모님께 왕관을 올려드린다.

2차 대전의 종전이 선언되던 날, 폴란드 모든 사람들은 여기로 몰려와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다. 오늘날에도 많은 폴란드 정치인들은 이곳에서 폴란드를 위해 기도를 드린다.

당신이 선택하고 머무르고 계시는 빛의 언덕에서 전 세계인 모두를 당신께 부르고 계시는 성모님!

우리는 수도원 내 경당에서 그날의 미사를 봉헌하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이제 이곳 폴란드를 떠난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를 만나기 위해 왔던 폴란드.

아픈 역사의 질곡 안에서 자비의 예수님께서 당신 자비를 선포하러 오신 곳,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고향이자, 이곳에 자유와 평화를 전하러 교황님으로 오셨

던 곳. 아픈 역사 끝에 더 많은 축복으로 빛나는 자비의 땅.

우리 일정은 천상의 식구들을 만나고, 그리워하고, 또다시 만나러 가는 여정이다.

바르샤바 공항을 떠나 저녁 무렵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5일째**( 5월 4일 ,부활 제5주간 금요일)

독일 (괴팅겐)- 네덜란드(베스테르보르크)

독일에서의 첫날은 평소 일정보다 한 시간 먼저 서둘러 기상과 조식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일 년 전 8월, 회원들이 모여 순례지를 선정할 때 베스테르보르크가 언급되었다. 누군가 이곳은 성녀가 아우슈비츠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른 곳이기 때문에 꼭 가보았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우리 순례 행선지 중에서 유난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밝혀지고, 여행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여행사와 회원, 그리고 회원들 서로 간에도 이곳을 순례지로 택할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조율이 어려웠다. 마지막에 극적으로 선정되면서 그야말로 이곳은 미지의 순례지가 되었다.

“오늘은 강행군이 있는 날입니다. 전화를 해보니 그곳은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고 해요. 그래도 먼 곳을 찾아가는데 문 열기 전까지는 가야잖아요?” 가이드 형제님의 말투에서는 일종의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베스테르보르크 가기 전 오전 일정인 괴팅겐. 조식 후 출발하는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괴팅겐까지만 해도 버스로 3시간.

성녀는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전공한 심리학에 한계를 인식하던 중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환호하게 되고 현상학의 창

시자이자 대가인 ‘후설’을 찾아 괴팅겐 대학에 오게 된다. 모든 학문의 전제가 되는 것을 음미해 나간다고 하는 학문적 방법은 현상학이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함께 하숙하던 로제 블룸 구트만과 에디트는 여성으로서 괴팅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세대였다.

“에디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리가 분명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의 문제와 맞붙어 나가는 창조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라고 후에 구트만은 말한다.

수자와 카오리는 책 ‘에디트 슈타인’에서 후설이 순수의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야말로 모든 진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후설은 순수 의식, 선험적 주관이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하느님, 초월자와의 관계를 도출해 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의 실제적 정신생활에 비추어서 본다면 후설이 설파하고 있는 순수의식이란 신앙이라고 불리는 것과 극히 가까워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란 자기 자신의 유한하고 불확실한 지식을 초월하려는 정신의 개방인 것이다. 이때에 하느님의 인도와 부르심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진리탐구와 신앙은 헛된 것이다.”

에디트 슈타인이 괴팅겐에 도착한 날은 1913년 4월 17일. 체류 기간은 1913년에서 1915년까지다. 이 시기를 저자(수자와 카오리)는 ‘학문과 신앙 사이를 오간 사이’라고 한다. 후설의 문하생이 된 에디트는 그곳에서 가톨릭 신앙에로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현상학자 아돌프 라이나흐를 만난다.

“라이나흐와의 첫 대면이 있는 후 나의 마음은 아주 행복감에 넘쳐 깊은 감사의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략) 내가 라이나흐와의 만남에서 체험한 것은 뭔가 전혀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새로

운 세계를 엿보게 하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라이나흐와의 특별했던 만남을 통하여 에디트는 이 세상 삶을 넘은 실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1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달던 1917년 11월, 라이나흐는 플랑드르에서 전사한다. 이곳은 지금의 벨기에 북쪽으로 1차 대전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곳이다.

라이나흐 장례식에서 만난 라이나흐 부인의 깊은 신앙심에서 에디트는 유대교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십자가 신비’로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체험하게 된다.

“그때 나는 십자가가 그것을 짊어지는 이에게 주는 신성한 힘에 처음으로 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적 수난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가 죽음의 가시를 쳐부수는 현실을 생전 처음으로 이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건 내 불신앙이 무너지고 유대교가 후퇴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십자가의 신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1921년, 에디트는 라이나흐의 유고 논문 ‘운동의 본질에 관하여’를 편집하여 출판한다.

또한 이 시기에 에디트에게 종교적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막스 셸러가 있다. 에디트는 셸러를 통해 현상학의 정신을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후설이 사상(事象)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모토에 의해 진리를 탐구하는 데 대하여, 셸러는 가치윤리학을 추구하고 있어 추상적인 것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삶에 관계되는 가치나 사랑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붙고 있었습니다.’

라이나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셸러를 통해 가톨릭에 성큼 다가서는 그 바탕에는 현상학이 깔려 있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의 정배가 될 이 명석하고 직관이 뛰어난 여성을 당신 품으로 천천히 끌어당기고 계셨던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를 떠난 버스가 이른 아침 괴팅겐에 도착, 녹지대가 관공서와 주택과 어우러진 전형적인 유럽의 소도시에 우리를 내려주었을 때 책에서 수없이 읽었던 부분이 감탄사처럼 터져 나왔다. 성녀가 괴팅겐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의 그 감탄으로.

“사랑하는 괴팅겐... 나는 스물 한 살이었고 바야흐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대로 벅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읽을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미리 보고 난 후처럼, 성녀의 탄생지와 죽음을 맞이했던 곳을 미리 지나쳐와, 오늘은 성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한 가운데로 들어왔다.

아담하고 한적한 대학 도시의 아침은 인적이 드물다. 도시 어딘가에 있을 괴팅겐 대학을 향해 자전거를 몰고 가는 학생들이 가끔씩 씩 지나가곤 했다. 느리게 돌아가는 화면처럼 아침 일찍부터 거리로 나온 노인들이 천천히 걷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 건물들로 에워싸인 광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일제히 우리들을 사로잡은 분수대를 향해 뛰다시피 걸어갔다. 갑자기 시끄러워진 한 무리의 동양인들을 향해 광장 주변의 행인들이 모두 우리를 한 번씩 쳐다보았다.

우리 눈길을 잡은 것은 ‘거위와 함께 있는 소녀 분수대’다. 책에는 성녀가 이 도시에 체류할 당시의 분수대가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시내로 통하는 입구에 위치해 있으니 성녀는 하숙집과 대학을 오가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곳을 지나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리가 환호하는 근거였다.

괴팅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사

람들이 와서 거위를 몰고 가는 소녀상에 꽃다발을 걸고 소녀에게 키스를 한다는 청동상.

푸른색이 도는 정교한 철제로 장미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소녀가 거위 두 마리를 몰고 가는 모습. 이 동상 안에는 어떤 아름다운 우화가 숨어 있을까?

성녀를 만난 듯 청동상에 온갖 애정 어린 눈길을 주던 우리의 감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탄식으로 변했다.

“아쉽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분수대는 진품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놀라움과 실망의 장탄식, 우리들이 아쉬워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가이드 형제님의 담담한 표정에 오히려 우리의 상실감은 더 컸다.

괴팅겐은 교육산업 중심 소도시라는 점 때문에 2차 대전의 폭격을 피했다는데 어째서 이 소녀 거위상은 가품이 세워져 있는 것일까?

성녀가 몸담았던 괴팅겐 대학마저도 나치의 드센 간섭을 받아 이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교수들이 쫓겨나고 지금까지도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니 시절의 아픔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한순간에 얻은 작은 실망을 뒤로하고 분수대 앞에서 서둘러 단체 사진을 찍었다.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분주한 날이다. 서둘러야 했다.

(다음 호에 계속)



\* 가르멜 프락 \*

## 왜 울고 있니?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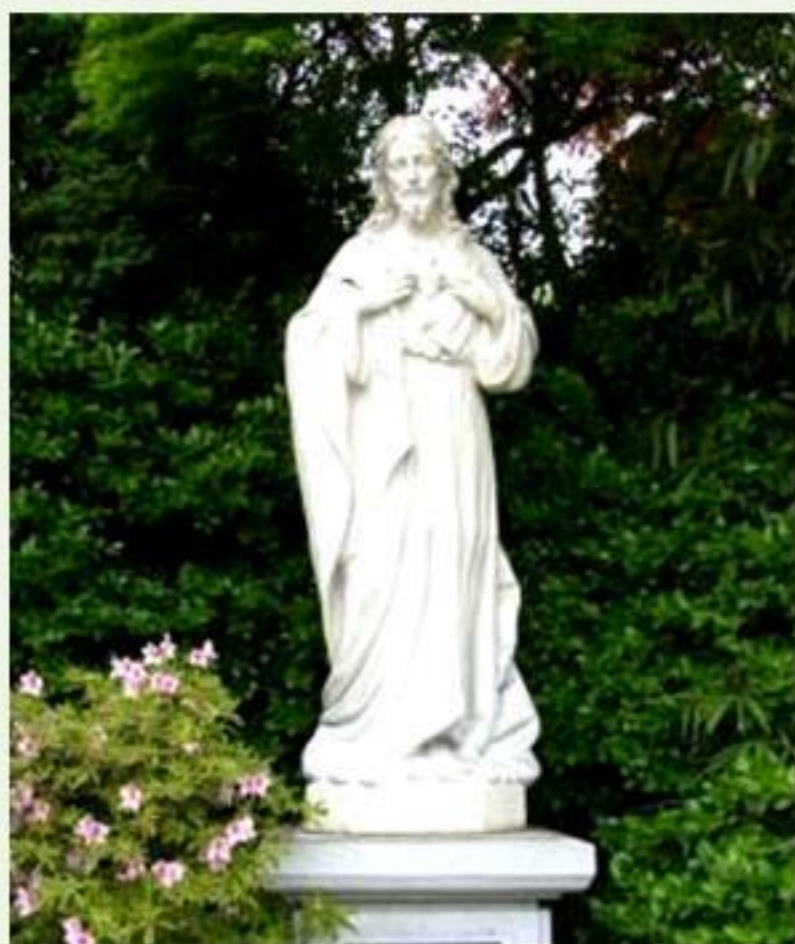
뒤뜰에 나서려니 창가에 놓아둔 고향에서 보내온 석란에 반짝임이 언뜻 눈에 스칩니다. 보일 듯 말 듯 작은 물방울이 맺혀있습니다. “왜 울고 있니?” 저의 우문에 살며시 속삭입니다. \* ‘친구야 너는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꽃을 피우기 위해 맺힌 맑은 눈물방울이었네요.

지난겨울, 강당에 감실을 모시고 임시 제대가 마련되었답니다. 가난한 처소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코로나는 그대와 나의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얼굴을 가려야 했지요. 새롭게 단장한 성전에서 봉헌 드리는 첫 미사 참례를 위해 새벽길을 떠나던 설렘, 눈부신 아침 햇살에 구름 사이로 설산이 마중하던 동으로 가는 길은 슬픔 한 자락도 따라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청하는 새

제대에는 어린양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무차별 폭격 속에 무구한 아기들까지 죽어가는 공포의 순간, 전쟁의 소용돌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던져진 젊은이들. 참혹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우리 가르멜 공동체 수사님, 수녀님들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근원이신 주님께 벗의 안전을 간구 드리며, 주님은 지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오랜만에 대면으로 양성 책임자, 구역장 교육이 끝난 후 파견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조용히 반주만 흐르는 영성체 시간, 성체를 영해 주시려고 다가오신 신부님,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여 얼떨결에 미국 본당에서 성체를 영하던 방법대로 마스크를 내리고 몸소 찾아오신 주님을 모셨습니다. 하루에 두 번 성체를 영할 수 있다지만, 오르간 의자의 삐그덕거리는 소음에 미사 시간 내내 조심스럽게 앉아 있어야 했지요. 새로 교체한 성당 바닥은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처럼 신고 간 구두 소리가 분심거리가 되었기에, 아침 미사엔 살그머니 구두를 벗고 맨발로 제대 앞을 오가던 주님의 날, 누구의 눈물로도 녹지 않는 얼음장 길인 가르멜 산길이 손짓합니다. \*\*달고 터진 알발로 뜨겁게 녹여 가라시며, 매웁고도 아련 향기 자오희한 꽃진 흘려 자욱자욱 붉게 붉게 뒤따르라 하십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향기 속에 숨긴 나의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작디작은 영롱한 눈물방울이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외아드님을 내어주실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 주님의 땀이 피로 변하는 고통, 성모님께서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애통. 생명이 스러진 자리에 흘린 눈물이 꽃으로 피어난다고 노래하네요. 수많은 주검 앞에 나의 자잘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야 아주 조금 알아들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왜 울고 있니?”님께서 다정히 다독이십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어른아이가 되어 오늘은 뜨겁게 젖어 드는 눈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집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의 빛이 내 영혼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시간이 햇빛에 젖으면 역사가 되고, 시간이 달빛에 젖으면 전설이 된다.’는 명언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에 젖으면 영원이 된다.’는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왜 울고 있니?”

그 한 말씀에 영혼 깊은 곳에 작은 불티 하나 튀었습니다. 인정(人情)이 사라진 인정 머리 없는 세상을 탓하지 않으시고, 연민의 눈길로 늘 나를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사랑의 불꽃입니다. 먼 옛날 막달레나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왜 울고 있니?” 지방 곁에서 토닥여 주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자애와 자비로 감싸주십니다.

주님, 성심께서 아파하시는 연민(compassion)의 슬픔 중에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이 모든 악이 소멸되게 하소서! 온 누리에 평화를 내려주시길 가 없으신 자비를 무릎 꿇어 청합니다.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 친구야 너는 아니 / 이해인 시, 김태원 곡, 부활(정동하)

\*\* 세한도 가는 길 / 유안진 시, 이안삼 곡



\* 가르멜 프락 \*

## 코로나의 가르침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조심조심 지나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우리 내외도 덮쳤다. 애들 아버지가 지병이 있어 2회/주 물리치료를 받고 다니던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는 바람에 그곳에서 전염된 듯했다. 초기에는 내가 목이 따갑게 많이 아프지만 열이 별로 없으니 잘 넘어갔고, 남편은 나보다는 약하게 지나가는 듯했다. 덜컥 겁이 나서 아들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만나지는 못해도 새벽배송으로 먹거리, 밀 키트(meal kit)인 손질된 식재료 등을 배송시켜준다. 문 앞에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떠나는 아들들. 그들의 맘도 편치 않았으리라. 자가 격리 7일 중 6일이 지나고 내일 오후 12시면 끝난다고 나름 한숨을 돌리던 바로 그때 남편이 숨이 쉬기가 어렵다며 드러눕는다.

어린아이가 다 되어버린 남편은 그래도 '링거라도 맞으시면 좀 시원하시잖겠냐'는 며느리의 전화는 그래도 받아들여서 병원에 가기로 하고 보건소에 연락을 했다. 타다가 줄 사람이 없어서 약도 배달을 받아야 했으니 그만큼 여기저기 연락할 곳이 많았다. 지정병원에, 지정약국에, 그리고 구급차도 불러야 했다. 앰블런스를 보낼 터이니 확진 받은 문자를 전송해 달라는 병원...

우물에 가서 송충을 찾았을까. 그런대로 핸드폰을 잘 사용했었는데 클릭조차 안 되고 문자전송이 안 되니 진땀만 난다. 시간은 흐르고 옆에서 남편은 괴로워하고... 나도 환자인데.

그 순간 소파에 앉으니 오열이 터져 나온다. 남편은 그 와중에 놀라서 나를 보듬어준다.

오전 9시부터 서둘러 연락을 했건만 오후 2시 반이 넘어서야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차는 완전히 비닐로 밀봉을 해 놓았고 임시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된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는 친절했으나 환자들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했다.

남편은 이렇게 준비 없이 보건소에서 다시 배정해준 비교적 가까운 경의선 라인능곡 근처의 병원에서 4박 5일의 입원을 하게 된다. 칫솔이며 세면도구 등을 전달해야 한다 하니 큰아들은 새벽에 들러 아버지께 보내 드릴 터이니 '현관 앞에 잘 걸어두라.'는 말로 몇 번이고 확인한다. 여별로 잔뜩 보내준 마스크의 크기가 안 맞다 하시니 병원 근처에 사는 작은아들이 아버지는 못 만나고 큰 것으로 다시 보내드렸다. 전염되는 병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라도 코로나의 격리법규는 잘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 하물며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를 숙고해 본다.

이번 사순절은 참으로 내 평생에 소중한 의미가 깊었다. 구급차 기다리는 동안에 이소연 미카엘라가 전화를 했기에 알린 사정을 우리 송요옥 회장님께 전달했으니, 온 동네에 소문을 내주시어 복 많은 내 남편 스테파노, 기도 참 많이 받았다.

그 후 월 모임에 참석하니 "앰블런스

타고 응급실 가신다는 형제님. 어떻게 기도를 안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시는 우리 가르멜 식구들. 평생에 이렇게 큰 기도 받아본 사람 또 몇이나 있을까요.

남편을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심정은 무서운 호랑이 옆에 두고 오는 처절한 심정이었다.

큰일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단다. 나는 내 아집에 묶여서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아니었는지. 위급한 순간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는 주님의 현존은 생각지도 않았던 나!!!

사랑보다 행하기 힘든 것이 겸손이라 생각했었다. 잘 되지 않는 겸손. 그래도 이 두 가지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듯. 그러나 일탈은 본능적인 것으로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집착을 못 버리는 나. 내 뜻을 바꾸고 의견을 버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위기를 승화시키는 일탈은 최고의 진선미(眞善美)가 아닐까.

왕자웨이(王家衛)감독의 명작 **‘화양연화(花樣年華)’**는 ‘내로남불’을 주제로 일생 중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중국영화이다.

양조위와 장만옥의 눈빛과 감정선 또한 애잔하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슬프게 끝을 맺지만 여운이 많이 남는 아름다운 영화다. 이웃에 살던 남녀가 각각 자기 배우자들의 외도를 의심하다 직접 만나 이를 확인하게 된다. 그들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위로한다. 이들은 배우자들을 비난하며 “우린 그들과 다르니까요.” 선을 긋는다. 그들처럼 되지 말자는 다짐이며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다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게 되니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만다. 그 첫걸음은 인생의 가장 아름

다운 때. 삶이 꽃이 되는, 아름다웠으나 추레하니 스러지는 목련꽃잎이었을까.

주님을 닮으려고 선행을 하고자 애쓰는 우리. 매일을 기도와 미사로 시작하는 우리. ‘우린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는 다짐과 경계심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경계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우린 그들과 다르다’는 오만과 편견만이 자리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내 사랑 주님께의 **‘花樣年華’**, 나의 봄날은 가버리고 우월감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남편의 병고가 맘 아프고 애타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난관을 풀어가야 하는 무거운 짐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웠던 나. 주님을 닮고자 선행을 애쓰는 나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분노... 나의 좌우명. ‘오른손이 한 선행은 왼손도 몰라야 하며 나 자신도 잊어야 한다.’는 가치관도 흔들던 일. 그럼에도 박병해 스테파노신부님은 “왜”라고 묻지 말라 하시던 주옥같은 말씀이 유난히도 가슴에 와 닿는다.

대자연의 봄, 그중에 우리 금수강산의 고운 봄날은 화려하니 눈부시다. 노란 생강나무꽃으로 시작되어 동백꽃, 산수유, 매화, 벚꽃, 개나리. 목련, 유채꽃, 진달래, 철쭉, 개나리 닳아 휘어지며 춤추는 조팝나무, 라일락꽃, 어머니 성모님의 장미꽃. 한꺼번에 피기보다 질서정연하니 자리다툼 없이 차례를 기다리는 형형색색 꽃의 마음이 그 자태와 맵시를 뽐내며 인간 사회 안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을 행복한 기쁨으로 환호하게 한다.

오호,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지금이 바로 우리들의 **‘花樣年華’**인 것을!!!\*

\* 가르멜 프락 \*

## 눈물샘

반숙자 (성 요셉의 벨라뎃다)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해서 안과를 찾은 날입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려 그래요.” 원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그런 증상이 오니 인공눈물약을 자주 넣으며 살라고 합니다. 시큰둥하며 안과를 나오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던 때가 분명 있었음을 기억했지요. 슬픈 기사를 보다가 울고 가여운 사람들 이야기에 울고 심지어는 남의 집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보다 더 울어 곤란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맘 졸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다 피하고 오직 제 몸뚱이 하나 보호하고자 애면글면하며 지냈습니다. 옆에서 누가 울거나 말거나, 설령 돌아가셨대도 온라인으로 봉투만 보내고 결례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때를 지나 3차 예방접종까지 하고 4차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이 코앞입니다. 몸이 으스스합니다. 몸살이 왔나 했지요. 바로 전날 장에서 고추모와 파 모, 땅콩 모를 사다가 밭에 비닐을 씌우고 심느라 세 시간 넘게 씨름을 해서 무리한 거라고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불이 젖도록 식은땀이 나서 옷을 바꿔입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침이 돼도 개운치가 않아서 예방접종하러 간 단골병원에서 원장님께 얘기를 했더니 접종보다는 검사가 급하다네요. 30분을 기다려 코로나 확진이니 약 타다가 잘 먹고 일주일간 격리하래요. 이날부터 격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죽은 셈 치고 살자 단단히 맘먹었습니다. 이참에 미루어 두었던 일들도 처리하자고 계획을 했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재채기가 줄나발을 붙면 콧물이 줄 줄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대육신이 천근만근 육신대는데 견잡을 수가 없습니다. 숨도 가빠지고 목에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조용히 투병하는 사람에게 폰이 자주 두드려요. 문인협회 분기회, 좋은 님들 월모임, 또 수필교실 미팅... 빠질 수 없는 모임에 불참 이유를 대기가 참 민망합니다. 집으로 찾아온다는데는 방법이 없어서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병균이 옮을까 무섭기는 한데 노인 혼자 앓고 있는 것을 안 제자들이 구미구미 먹을 것을 챙겨 문밖에 놓기를 시작합니다. 입맛을 잃어 먹지를 못한대도 그래도 먹어야 산다고 우겨댑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열이 조금 떨어지니 종일 하는 일이 거실 창문으로 바깥세상을 보는 일입니다. 초록으로 물들어 가는 앞산과 하늘이 아름다워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이 정겨워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을 보는 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면 이불 쓰고 앓다가 좀 뺏해지면 또 창 앞에 앉아서 늘 걷던 산책길이며 먼 산 그늘 우리 집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열은 언제 떨어지나, 기침이라도 좀 멎으면 살겠는데... 그래도 재택 간호사가

하루 두 번 문자로 상태를 확인해 주고 단골병원 간호사도 안부를 물어주니 고맙기 그지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코로나와 씨름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기도 한 번 못했어요. 밥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대로 코로나 감옥을 사는 죄수입니다.

그날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폰이 불려요. “문 열어 주세요” 글 제자입니다. “안돼요, 큰일 나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갈게요” 막무가내로 두드리는 통에 문을 열었더니 꽃바구니에 과일에 약까지 챙겨와서 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고...

그렇게 제자를 보내놓고 성모님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콧잔등이 시큰하더니 눈물이 쏟아져요. 이런 사랑을 제가 받으면 어찌냐구요,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전염병 세상에 불안을 무릅쓰고 달려와 따뜻이 손잡아주고 가는 제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 이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에는 미역국에 생선구이에 햇김치에 바리바리 놓아두고 갔네요. 꽃바구니가 우리 성모님 앞에 가득해요. 장미꽃들, 카네이션꽃들 바구니마다 사랑을 담아서 두고 간 마음들을 앞에 두고 감사해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사랑해서 울어요.

오늘 저녁 성모님께 여쭙봤어요. 성모님, 저를 데려가실 때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을 보내는지요? 계산도 없이 숙제도 없이 그냥 좋아하는 일밖에 없는데 어찌자고 이분들은 멀리서 가까이서 달려와 맘을 놓고 가나요? 알 수 없는 일, 제 감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제자는 좀 나무랬더니 “제가 좋아서 이러는 줄 선생님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답이 왔어요.

성모님께서도 제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처럼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 외롭다고 떼를 쓰고 속상할 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만 들으셨지 따뜻한 미소, 향기로운 마음의 꽃 한 송이 바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딸에게 이웃들을 통해 부어주시는 사랑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성모님!

세상은 격리로 단절되는데 저는 하해 같은 은총을 입고 또 울어요. 울다 울다 보면 열이 내려요. 꽃바구니 보다가 울고 성모님 바라보다 울고 꽃바구니에 매달린 “사랑합니다” 란 리본을 바라보다 또 울어요. 죄송하게도 이런 사람들 틈에서도 저는 가끔 외롭다고 투정을 했지요.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기침이 나네요. 목이 가시에 찢린 것 같아요. 음식 맛도 모르고 꽃향내도 몰라요. 그런데 가슴 가득 차오르는 애달픈 사랑은 알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이 때 묻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들요. 그래서 감사해서 또 울어요.

그동안 눈물샘이 말랐던 게 아니고 제 마음 샘이 말랐던 거예요. 영혼이 타들어 사막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 안에 저만 가득했지 우리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런 딸을 지키기 위해 따뜻한 이웃들을 보내신 거지요.

오늘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묘약을 받자웁고 헌 마음 깨끗이 빨아서 세상에 나가면 당신의 찰진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코로나를 통해 받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찬미 주님!!\*

\* 가르멜 프락 \*

## 사순시기 18일간 100성당의 추억

이옥주(성체의 미리암)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2008년 2월15일 .

사순절이 돌아올 때마다 기억이 새로워져 일기장 속 처음 내놓는 글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침묵하며 추억이기도 한 일들 뒤 돌아보며 펼쳐봅니다.

아픈 손가락(아들)이 있기에 고뇌와 번민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 불안한 날들, 힘들 때마다 우울하게 지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게으름과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며 내 맘대로 건성건성 지내 온 신앙생활이 부끄럽기만 했지요.

하느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가르멜 성소. 늦은 나이에 선택을 받고 기꺼이 응답하였습니다. 하느님 현존 안에서 몸과 마음을 전부 다스리시며 끊임 없이 자신을 비워가며 기도에 전념하는 가르멜 수도자들의 모습, 영성으로 이어진 성인 성녀들의 성스런 발자취,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보고 배우고 많은 것들로 내 삶의 신앙이 굳세어지고 기쁨과 평화였습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신비 파스카(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동안 사순절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순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뉘우쳐졌습니다. 사소한 차 한 잔, 밥 한 끼라도 절제한다는 마음을 지켜왔는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세월이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뜻

있게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고 기도하며 속죄하고 새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나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주님에 대한 열망,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의 열정이 늦게 타오르기 시작 - 쉬는 육체는 되지 말자며 굳게 결심하고 비록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100성당 예수님을 만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3)

말씀을 가슴에 안고 100성당을 찾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속죄하며 뵙고 싶어졌습니다. 가다가다 힘에 겨워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얀 봉투 100개를 준비하고, 운동화 끈을 매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 노선을 찾으며 네비게이션 삼아 유랑 아난 예수님을 만나러 다니는 순례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 2:18)

사순시기가 2월에 되어서 눈발이 날리기도 하고 쌀쌀한 날씨가 많았습니다. 정화된 성당 문을 열고 경건한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높이 처절하게 매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 상처의 시련을 수없이 겪으셨을 주님을 바라보니 저절로 통회가 (예전과 다르게)

온몸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을 다니다 보니 발가락이 모두가 부풀어 말랑말랑. 아픔보다 감사의 선물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성당을 찾아가다 보니 애정이 깊어만 갔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성모님! 안녕하세요. 인사말이 튀어 나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총이 넘칩니다. 오늘은 이대로 더 머물고 싶다... 마치 친정집의 부모님을 뵈듯 포근하고 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듯 안기고 싶어 오래 쉬고 싶어졌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어느 날은 수도원에서 안내를 받고 성당을 올라갔습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며 묵주기도를 하고, 나오는 출구를 못 찾아 폰으로 연락하여 수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는 미로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지요 하시며 웃으시던 수사님의 말씀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그날따라 몹시 추웠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따끈한 국밥한 그릇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날은 군인성당. 녹지 않은 얼음덩이가 겨울의 흔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탓도 있겠지만 성당 안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어야 신부님이 나오신다고 보초병이 말했습니다. 사무실도 봉헌함도 안 보였습니다. 이곳엔 초코파이 하나라도 더 놓고 가야 되는데 작은 정성이라도 봉헌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니 더욱 절실하게 기도하고 아쉬움을 남기며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다니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생략)

이렇게 특별한 나의 발걸음들로 사랑과 행복, 그리고 아쉬움을 체험하였고, 당신을 맞이할 마음가짐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 한 번 반성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모두 하느님의 신비였습니다.

황혼의 노년길.

이제는 당신 영광 안에 기다림 뿐입니다. 영원히 당신의 빛과 사랑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2008. 2. 15 ~ 3. 6까지 총 100성당을 방문(중복하여 2회 방문 성당 2곳 포함)하여 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 진주처럼 고이 아름다운...

### <프로로그>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

가대소 천장에서 내려온 두 개의 줄이 있었다. 수녀님이 양손에 하나씩 잡고 번갈아 잡아당기니 종소리가 난다. 두 개의 종인데 각 음이 달랐다. 하늘의 은총을 땅으로 끌어당기듯 쌍 종을 울리는 대축일 미사. 수녀들은 흰 망토 차림이다. 둥근 제대가 주례 사제를 맞이한다. 강론은 꿈에서 천사를 만나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옮긴 요셉의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다. 강론 중간에 들리는 수녀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웃을 일 없는 팍팍한 세상 한가운데로 퍼져 나간다. 맑고 싱그럽다.

「천주자비의 글 6,6-6,9」 나는 변호자, 수호자로 영화로우신 성 요셉을 골라 그분에게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 저는 성인의 축일을 되도록 정성 들여 장엄하게 지내려고 힘썼습니다. ~ 이 성인은 당신께 매달리는 영혼들을 눈부시게 성장시킵니다. 나는 이 몇 년 동안 성인의 축일이면 한 가지 은혜를 청해 왔는데, 언제나 소원이 이뤄졌습니다. ~ 특히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 요셉께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기도를 가르쳐 줄 만한 스승을 갖지 못한 분은 이 영화로운 성인을 인도자로 삼으신다면 길을 헤맬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박지현** : 지금 성 요셉 성월을 보내고 있고, 오늘 특별히 성 요셉 축일에 수녀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데레사 성녀께서 수도원을 창립하실 때마다 요셉 성인께 의탁하셨는데요, 수녀님들께 요셉 성인은 어떤 분이세요?

**수녀 2** : 예수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성 요셉의 전구로 도움을 받으셨던 체험이 있으셨고, 첫 수도원을 성 요셉 수도원이라고 이름 지으셨으며, 창립을 위해 길을 떠날 때에도 항상 작은 성 요셉 상을 품에 안고 다니셨다고 해요. 서울 가르멜에서 의정부 가르멜 설립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의논하여, 공동체가 매일 저녁기도 후 '묵주기도'와 '성 요셉께 드리는 9일 기도'를 2020년 6월 11일 떠나오기 전까지 바쳤어요. 입주하여 2020년 성 요셉 대희년을 맞아 교황님의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요셉 성인에게 바치는 기도문'을 저희 수도원 교회법적 설립을 위한 지향으로 매일 공동체가 성 요셉의 전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립사 31,46」 수도원 창립을 다 마치고, 세속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봉쇄 안에 있게 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살아있는 물’ (요한 4장)을 찾지 못했고, 천상 신랑께서 모습을 숨기시지나 않았는지 걱정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박지현 : 데레사 성녀께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묵상기도)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물’로 표현하셨다. 이러한 묵상기도 안에서 어떤 힘을 얻고 있는지 성녀의 딸들에게 물었다.

수녀 5 : 기도가 본업이긴 해도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온갖 방법을 다 써 봤지만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중간에 분심이 들거나 졸더라도 그 의지가 지탱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엔 매일 복음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내 느낌이나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서 했었는데, 매일의 주님의 말씀이 그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듣고 깨달으려고 해요. 어느 구절이 감성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내 것인 거고….

지금은 기쁨이나 즐거움, 좋은 감정 그런 것보다 그날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성내지 말라.’ 등 그런 말씀들에 집중합니다. 그럼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주시더군요. 말씀에 잠기는 것, 또 말씀은 내가 내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에 나를 맡기고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제겐 주님과 대화이고 묵상기도인 것 같아요.

박지현 : 묵상기도 안에서 비쳐지는 내면의 나, 자아인식이라고 할까요?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직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어떨습니까?

수녀 6 : (미소 지으며) 직면, 매일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다 언니 수녀님들이니까, 어린 만큼 결점도 많고… 어떤 일에 후회도 되고, 부끄러운 일도 많아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선, 내 말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옮기는 게 어렵고… 마음에선 그냥, “하기 싫어 이번만은.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수녀들이 또 까르르 웃는다.)

영적 독서를 하거나 묵상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부터 서서히 부드러워지면 각이 세워진 곳이 둥그러지고 말랑말랑 얼음이 녹듯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의지적으로 난 이렇게 할 거야…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뜻과 욕심을 성취하려는 거구나. 하느님께선 당신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놓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 그런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창립사 31,47」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자그마한 고통, 그것조차 기쁨에 감싸여 부드러워져서 다음 날이면 사라지는 그런 고통과 맞바꾸어서, 영원히 끝없는 천국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하신 임금님이신 주님을 무궁히 찬미하지 않으렵니까?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

**박지현** : 수녀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를 열어 보이는 그의 개방성에서, 진솔함과 영적 순수성을 엿볼 수 있었다. 내가 나를 직면할 때 인식됐던 내면의 어려움들을 그가 대신 표현해준 것 같아서 절로 동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데레사 성녀께서는 이렇듯 수녀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와 공동 휴식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여기 수녀들은 어떨까?

**수녀 1** : 저희는 손들고 서로 얘기하려고... 웃고 떠들고, 메가폰도 불어요. (웃음) 고독과 침묵이 우선이지만, 공동 휴식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한 마디도 안 하면 규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하죠. 어느 수녀님은 꼭 끝나기 5분 전에 한마디 하시는데, 그럼 저희는 휴식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구나 하고 가늠을 하죠. 휴식을 통해 수녀들이 정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고, 공동생활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 기도의 삶에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녀 2** : 네, 얘기하면서 서로 오해도 풀고요. 웃기기도 하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 유머러스하게 말하며 자신을 겸손되이 내놓기도 하죠. 데레사 성녀께서 수도원의 일과표를 짜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균형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

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천사가 아닌 인간이다.' 이 점을 강조하신 것을 보면...

**수녀 5** : (공감적인 표현을 하며) 네, 어른 수녀님들이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 정말 큰 힘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밖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니까요. 인간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내 부족함이나 또 서로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난 15년의 고통을 함께 겪고 견디시면서, 혼자서는 해 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성인이 되는 길이구나. 어른 수녀님들이 그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 이 시대의 징표가 아닐까 해요. 공동체 없이는 성장도, 성화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가르멜 공동체에서 이걸 살아내야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요.



돌밭을 가꾼 농지

**박지현** :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길, 자신의 힘만으론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공동체의 성화와 화합의 길, 그 길로 들어서기까지 부르심과 응답의 여정이 있었다. 그들의 '성소'에 대해 물었다.

**수녀 1** : 요즘 성소자가 없다고 걱정하시는데, 봉쇄수녀로서 저희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질적으로 더욱 담금질을 해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필요하죠. 관상 수도원은 특히나 더... 교황님의 권고로 수도자들 성소 식별하는 기간이 6년 반에서 9년 반으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서품이나 종신서약 후에 나가는 사제, 수도자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수도생활을 질적으로 드높이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지현** : 성소에 관한 이야기 끝에, 종신서원을 한 수녀님께 질문했다. "관상 수도원에 입회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단절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수녀 6** : 제가 성소를 받고 입회를 생각할 때, 저는 지인 수녀님과 성소에 대해 상의했어요. 제가 성모 신심이 있었던 터라 54

일 목주기도를 바쳤어요. 가르멜 입회를 결정했을 때 제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던 일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거라서, 더 확실한 징표를 기다린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컸었죠. 하지만 신앙은 결단이니깐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구나.

밖에서도 일을 하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 그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건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수도원 생활도 그래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싫은데, 딱 1가지가 좋은 거라면, 이 하나의 가치가 9가지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느님과 만남과 사랑!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역시 사회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박지현** : 오늘, 보석 같은 수도생활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재속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수녀 1** :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 15,4-5) 가르멜을 하느님의 포도밭이라고 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가지는 공동체, 재속회, 수도원, 가정, 학교, 직장을 뜻합니다. 시련이 오면 하느님도 떠나고 싶고, 공동체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절대 떨어져 나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느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하느님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우리의 힘이고 희망입니다.



2020년 1월 3일 공현대축일 이기현 주교님과 성무일도

그리고 오늘의 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도원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기도와 봉헌과 희생 등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가르멜 재속회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회원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현** : 격자창을 사이에 두고 나눈 대화가 성령의 친교 안에서 무르익었다. 마음의 빗장이 열리니, 봉쇄와 세속의 경계도 허물어졌다. 고독과 침묵 안에서 농익은 사마리아 여인의 '살아있는 물', 그 생수의 충만함이 흘러넘쳤다. 수녀들은 공동 휴식 시간을 마치고 저녁 기도를 바치기 위해 가대소로 향했다. 사뿐히 돌아선 그들의 뒷모습엔 가르멜의 꽃향기가 가득했다.

#### <에필로그>

저녁 성무일도가 시작되었다. 동정녀들의 가냘픈 목소리가 심금을 울린다.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편태 맞으신 예수님. 바라 뵈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김형주 화백(124위 순교 복자들의 초상화, 새벽빛을 여는 사람들)이 붓으로 예

수님 몸에 색을 입혀 상처를 덮어주었다. 피로 영긴 못과 가시관은 금색으로 치장하여 다시 탄생시킨 (부활) 십자가란다. 창립의 트라우마를 온몸으로 받아낸 수녀들의 십자가와 부활, 어찌 이리도 닮았던가 말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지난 십여 년간 법정 일로 방치되어 황폐했던 자연이 회복되었다. 돌이 가득한 불모지 땅도 배추와 무를 심는 밭으로 거듭났다. 수녀원의 사계절이 절경을 이루니, 오시는 분마다 치유의 은총이 깃든다. 모든 것이 부활이고, 하느님의 섭리를 드러낸다. 평화의 언덕, 교회의 어머니이신 '평화의 모후'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언덕을 뒤로 하고 걸어 내려온 길, 봉쇄 수녀 두 분이 저만치 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비옥한 가르멜 포도밭에 매달린 포도 두 송이, 모진 고통 품은 진주처럼 고이 아름다운 하느님의 열매, 개혁 가르멜회를 창립한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딸들이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수녀님, 안녕! 하느님의 숨은 꽃으로 행복하세요.” \*



편태 맞으신 예수님



상처가 아문 예수님의 몸

## 우크라이나 재속 맨발가르멜회 소식

베로니카 주이에바/ 키이우 공동체 회원



중앙: 베로니카 자매님과 남편 알레한드로 형제님,  
좌: 가르멜수도회 총장 미구엘 마르케스 까예 신부님  
우: 우크라이나의 총장 대리 유제프 신부님

저는 여러분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재속 맨발가르멜회 공동체의 현재 상황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르멜 영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로 모두 46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유럽 지역에서의 재속 가르멜회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 구도심 외곽에 성 십자가의 현양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멜 사제들이 공산당 통치 이후부터 선교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보호자이신 천사들의 재속회 공동체가 창립되었고 오늘날 키이우 공동체는 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2003년 2월에 가르멜 사제들의 도움으로 크멜니츠스키에 은총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14명의 회원들이 입회했습니다. 2014년 가을에 베르디치프에 스카폴라의 성 마리아의 성화의 보호 아래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회원은 8명입니다. 2020년 1월에는 크하르키

프에 프라하의 아기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고 현재 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모든 공동체와 가족들이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소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크하르키프의 파괴된 지역에 한 회원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 음식 그리고 난방은 떨어져서 그 회원분은 본당 근처 병커에 피난해 있습니다. 베르디치프 공동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베르디치프는 공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돕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라(우크라이나) 동쪽에서 피난 온 이들을 맞아들이고 또 다른 이들은 도시 방어군과 군인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멜니츠스키에서 공동체 회원들은 봉쇄된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키이우 주변은 많은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집은 주춧돌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4명의 재속회원들이 키이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자비하신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가르멜의 위대한 보호자, 성 요셉 안에서 피난처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모든 공동체는 우리 거룩한 어머니 예수의 데레사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위대한 성인께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성 요셉께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 8월 구역모임

##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 제38장과 39장의 해설:

#### 기도의 향구에 있는 암초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청원**에 이르렀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위험과 악을 경계하는 두 개의 청원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청원을 성부께 드린다. 또한 우리가 **악(惡)**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사는 청원도 드린다.

성녀는 유혹과 위험에 대한 이 대화를 초보자가 아닌 진보자들에게 향했다. “완덕에 이른 사람들”, “관상을 하는 사람들” (1~2절). 성녀는 여기서 진실로 기도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부정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뭔가를 말하고자 했다. 그것은 기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일종의 독충을 말한다.

#### 1. 숨겨진 암초

기도 그 자체에 간직된 큰 어려움은 실제로 하느님과 관계하는 데 있다. 그분과 말하는 것, 초월이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큰 위험은 자신 안으로 ‘수축’ 되거나 ‘자기암시’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한없이 일그러진 나사처럼 되고,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모두 왜곡되고 만다.

-기도하는 이의 내면에는 기도를 통해 갖게 되는 거짓 또는 환상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자라날 수 있다. 그는 기도 가운데 받게 되는 빛나는 장식들(“맛과 선물”)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속인다. 그것은 우리 안에 파리를 틀고 “진리의 빛을 감춰 버린다.”

-하지만 큰 위협을 가하는 큰 암초가 이 “유혹”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악마들)이 끼치는 해 중에도 가장 작은 것일 성실합니다” (3절). 단순한 마음으로 산다면, 실수조차도 진정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께 온전히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우게 해 줄 것이다.

-이런 상대적인 암초를 거슬러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는 우선, ‘진실한 겸손’을 들 수 있다. “자매들이여, 언제나 겸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다음으로 ‘올바른 지향’을 들 수 있다. “하느님은 우리의 지향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의 충실함을 봐야 한다. “주님께서는 충실하십니다... 따님들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그 누가 아닌 당신 자신을 많이 선물해 주십니다” (4절). 하느님의 충실하심에 대한 신뢰는 기도하는 이를 그 자신의 심리적인 속임수 또는 거짓 천사의 환영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진정 큰 유혹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교만’의 영역에 자리한다. 또한, 기도하는 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왜곡된 이미지가 숨겨진 곳에 있다. “악마가 우리도 모르게 가장 무서운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리란, 우리가 덕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로 믿는 곳으로서 이것이야말로 페스트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주는 듯이, 혹은 섬기기나 하는 듯이 주께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차츰 커다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겸손이 약화되는 한편, 이미 그 덕을 닦은 줄로 믿기 때문에 덕 닦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숨어서 기다리는 중대한 왜곡과 “배반”의 위험이다. 이것은 밖이 아닌 하느님과 교제라는 깊은 곳에서 오는 위험이다.

## 2. 암초에 주의함

성녀는 덕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을 강조해서 지적했으며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혹이라고 보았다.

- 우리가 덕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로 믿는 “거짓된 상태”에서 사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페스트와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이 정점에 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채권자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우리가 그분께 뭔가를 주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채무자로 간주하고 만다. 이는 기도에서 완전히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거기서 악마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한 채 큰 해악을 줄 수 있습니다.” 성녀는 그것을 빛과 진리를 어둡게 하는 “독”(2절)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영성 생활의 진보를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로 보았다.

이런 유혹은 하느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요청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깨뜨려 버린다. ‘진리’와 ‘겸손’이 그것이다.

기도, 즉 하느님과 더불어 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 안에 걷는 것”이 필요하다. “영혼이 진리의 길부터 걷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자 13,16). “우리가 가진 것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아야 합니다”(7절). 이런 내적 자산들은 인간의 영을 품격 있게 해 주며 하느님께로 다가가게 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겨진”(8절) 선물이다.

두 번째로 성녀는 기도를 위한 조건으로 겸손을 들었다. “겸손은 진리 안에 걷는

것” “아무리 높은 관상이라도 그 기도는 ‘나를 앎’으로써 시작되고 끝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완,바 39, 5).

## 3. 빈번한 유혹의 메마름

성녀는 기도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암초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다.

우선, 데레사는 ‘교만’을 꼽았다. 교만은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진리와 겸손을 거슬러 죄를 짓는다. 또한, 거짓된 겸손의 모습은 하느님 앞에서 위선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이는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이 지은 죄만을 바라보면서 좌절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데레사는 “영똥한 고행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밖에 “또 다른 위험한 유혹”도 있다. 결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안전한 느낌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유혹이 그것이다. “여러분은 다시는 죄지를 염려가 없고 기회를 피할 것이 없다 할 만큼 두려움 없는 안심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완,바 39, 4).

## 4. 기도를 끝맺음

본 장의 마지막에는 성녀의 교육적인 수칙이 다시 제시되고 있다. 즉 말한 것을 기도화하기 전에는 절대 기도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당신께 매달려 저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낼지 못하도록 비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드러나게 다가오는 원수들이라면 당신의 도우심으로 쉽게 물리치겠습니까마는, 그들의 암계를 누가 알아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 구원을 빌어야 할 우리입니다”(완,바 39, 6).\*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에서

## 수도회 소식

###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일시: 6월 10일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4), 7월 8일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5)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무료 강연

###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 문의: 010-2140-7414

### 성시간

- 2022년 6월 25일 (?신부 지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 채색화 교실 신입 모집 안내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 장소 : 서울 관구본부 2층 대강의실
- 지도 : 박보규 가브리엘 수사
- 회비 : 3개월 100,000원(재료비 별도)
- 추가모집: 선착순 5명(기존 수강자 5명)
- 강의시작: 7월 5일(기초부터)
- 신청방법: 6월 25일부터 휴대폰(010 9717 4855)  
문자(성명/ 본명/ 소속 재속회)로

###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 재속회 소식

###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최삼중 아기예수의 요셉 (향년74세)
- 선종일: 2022년 4월 29일
-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손기복 성모성심의 엘레나
- 선종일: 2022년 5월 7일(향년 84세)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2022.4.22. 관구장 신부님과 관구 참사회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방문

부활 시기를 맞아 관구장님과 함께 관구 임원들이 서울 가르멜 수녀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수도원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 수녀님들께서 수도원의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였지만,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의 수련기 수녀님이 계셨는데 성소자가 많이 나지 않는 요즘에 두 분을 뵈니 수도원이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회보에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와서 보니 60년이 지난 건물의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막상 수도원 건물을 재건축해야하는 입장이지만 10년이 넘게 걸려 의정부 수녀원을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엄두가 나지 않아 막막하던 차에 재속회원들이 보여주신 기도와 관심이 수도원에는 희망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떠나기 전 수녀님들께서 불러주신 특송 Dona Nobis Pacem(평화를 주소서!)은 천상에서 울리는 천사들의 소리처럼 우리 마음에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만남 후 안내해주신 피정의 집은 우리 회원들도 모임이나 피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에 공동체에 알려드리고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화창한 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신 수녀님들과 5월 미주 사목 방문을 앞두고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관구장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종신서약

#### \* 대전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2년 4월 20일
- . 회원: 김은정 십자가의 루갈다  
박경순 성덕의 크리스티나  
김용운 성모성심의 마리아  
송미자 예수성심의 세실리아

#### \*청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2년 4월 26일
- . 회원: 권성순 아기예수의 글라라

####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2년 4월 24일
- . 회원: 임갑숙 예수성심의 아녜스  
김정숙 삼위일체의 카타리나  
백인옥 가르멜 산 성모의 베리타스

#### \* 대전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 날짜: 2022년 4월 27일
- . 회원: 김민자 예수의 마르첼리나  
이명혜 아기예수의 카타리나

## \* 대구 십자가의 성 요한



- . 날짜: 2022년 4월 27일
- . 회원: 박예순 삼위일체의 마리아  
남영희 어머니마리아의 루치아  
정경희 성령의 안나

## \*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 . 날짜: 2022년 5월 1일
- . 회원: 임정미 아기예수의 소피아

##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 . 날짜: 2022년 5월 7일
- . 회원: 전상순 삼위일체 세실리아

## \* 서울 성 요셉



- . 날짜: 2022년 5월 8일
- . 회원: 전하영 예수의 마리아  
김태희 성체의 안젤라  
이종호 예수성심의 마르티노

## 은경축

## \*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 . 날짜: 2022년 5월 2일
- . 회원: 박연희 성모성심의 세레나  
주영복 가르멜의 마리의 데레사  
신혜식 십자가의 헬레나  
전정옥 천주자비의 마리아  
김순정 아기예수의 글라라

##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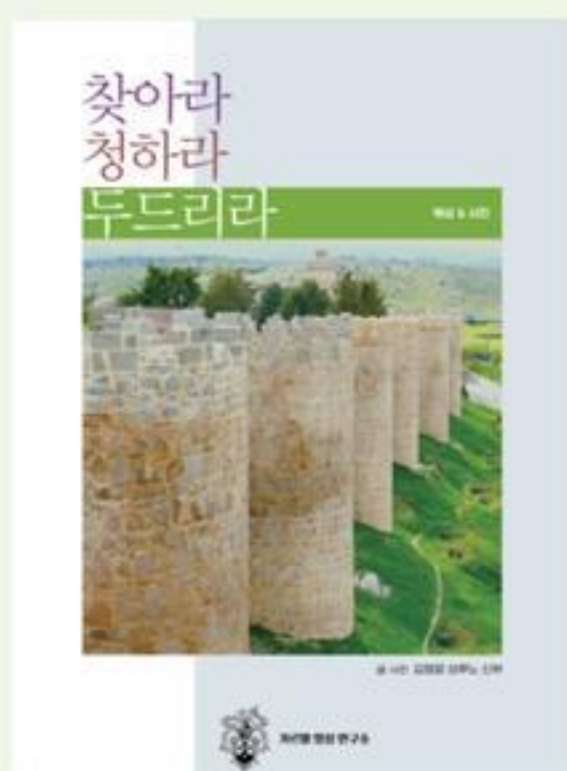
- . 날짜: 2022년 5월 4일
- . 회원: 한상순 가르멜의 바울라  
권강자 예수성심의 수산나

## \* 수원 성 요셉



- . 날짜 : 2022년 5월 9일
- . 회원 : 김향연 성체의 쟈마  
이영숙 아기 예수의 실비아  
임희숙 소년 예수의 소화 데레사

\* 신간 안내 \*



## 찾아라 청하라 두드리라

글·사진 : 김영문 브루노 신부

출판사 : 가르멜 영성 연구소

구입 및 문의 :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010-6305-5088 )

가격: 정가 19,000원 / 재속회원 보급가 15,000원

김영문 브루노 신부님께서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사진과 글들을 엮어 책을 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합니다. 물론 가르멜 재속회보를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읽게 되지만, 정식으로 책으로 출간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저희들의 바램에 응해주시는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라. 청하라. 두드리라”라는 제목처럼, 수도생활은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끝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청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여정입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이 여정 안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들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들이라도 하느님께 인도해주는 좋은 소재가 되기에, 당신의 눈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이 순간은 한 컷의 사진이 말 한마디로 변하는 순간이고, 마음이 글로 변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순간은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순간이고,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셔터를 누르시는 그 순간과 글이 만들어지는 그 짧은 순간 안에서 사랑이 생기고,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고, 성찰과 결심이 세워집니다.

이 순간들은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순간이고, 하느님과 만나는 기도의 순간입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매 순간을 마주할 때 한 순간의 찰나가 거룩함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소중한 순간들 속으로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브루노 신부님께서서는 용기있는 마음으로 내디딘 발걸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들도 역시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의 문을 두드리자는 초대의 인사를 건네드립니다.

침묵이 그리울 때, 기도가 간절해질 때, 사랑하기가 힘들 때 이 책은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한 편 한 편의 글과 사진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씩 하느님께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일상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부님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예수성심 Ⅱ

“오 예수님의 마음, 다정함의 보화이시여,  
당신께선 저의 행복, 저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시 23,6)

- 아기예수와 성면의 성녀 데레사 -